朝鮮日報
夕刊 六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利福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 朝光 女性

社說

人口過剩과 滿洲移住

一

朝鮮의 人口는 半世紀來로 非常한 增加의 趨勢를 示하고 잇다 都市人口의 增加는 勿論이요 農村人口도 또한 그러하여서 昨年末統計를 前年末에 比하여보면 그 增加率이 實로 人口千人에 對하야 一三、九五人이다 또 人口實數로 보면 昭和五年末에 二〇、二五六、五六三人이던 것이 八年을 經過한 昨年末에는 二二、三五五、四八五人으로 되여서 平均每年에 二十六萬餘人씩 增加를 示하엿다. 이것은 여러가지 議論할 餘地는 잇다고 할지라도 一個의 歡迎할 社會現象임에 틀림이 업는 것이다 다만 그 反面에 잇서서 富의 增進이 이 人口增加와 平行치 못하면 生活程度의 墜落은 不可避의 事情에 잇는 것이다.

二

뿐만 아니라 農村으로 말하면 農村人口가 增加하면 그 增加한 만치의 人口를 收容할 耕地面積이 增加하여야 될 것이다. 實際 統計數字를 羅列하는 것은 冗長에 빠질 念慮가 잇스므로 省略하거니와 耕地面積도 增加하지 안코 잇는 것이 大勢이다 그러므로 農家 一戶當 耕地面積도 不知不識中에 縮少할 수 밧게 업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가튼 情勢에 잇스므로 朝鮮은 實로 人口過剩의 事態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現存한 農家 一戶當 耕地面積은 農家維持上 殆히 最少限度의 것으로 이것이 縮少될 傾向下에 잇는 것은 農村의 振興과 農産擴充이 絕對必要한 此際에 到底히 安心할 수 업는 바이다. 이와 가튼 人口過剩의 對策은 여러가지가 잇스나 그러나 商工業及 其他産業의 振興發展으로 因한 人口支持力의 增進以外에 域外 移住를 考慮하는 外에 別로 다른 積極的 方法이 업는 것이다.

三

滿洲는 歷史的 地理的 經濟的으로 朝鮮사람과 不可分의 關係에 잇는 것이다. 結果로 今日에 벌써 百二十萬의 移住民이 그곳에 가잇고 또 土地가 曠漠하고 人口가 稀少한 것이기 때문에 朝鮮의 過剩人口를 移住시키는 데에 絕好의 地域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朝鮮사람의 滿洲移住를 史的으로 考察하여 본다면 人種的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諸條件이 綜錯된 環境속에서 눈물이 아니날 것이 업스리만치 그만치 悲慘한 것이엿다 그러나 滿洲事變以後로 여러가지 惡種條件이 漸次로 消滅되고 엇재든 王道樂土가 되엿스며 또 鮮滿一如政策下에 聯繫性은 加一層緊密하여젓다 더욱이 近日에 와서는 滿洲國에서는 從來의 限地移住政策을 抛棄하고 集合移住와 分散移住의 어느 것이던지 每年 一萬戶에 限하야 移住에 對한 責任을 질 것을 決定하게 되엿다.

四

一年에 萬戶 卽約五萬人이 滿洲로 移住하는 것이 朝鮮內의 人口過剩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못될 것이다 그러나 質이 良好한 移住民이 移住하는 것은 從來漫然渡滿으로 移住者에게도 苦楚가 莫甚하엿고 또 滿洲國側에도 頭痛거리가 되던 것에 比하야 一段의 好結果를 齎來할 것이 確定된 事實이다 그 一言을 付托코저 하는 것은 이 移民事業에 直接責任을 진 事業體가 近代資本主義的營利에만 汲汲하여서는 안될 것이요 모름지이 國策線에 沿하야 移住者의 福利增進에 眼目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山설고 물서른 新天地로 移住하는 移住者들을 指導할 當局에서도 用意周到하게 處事를 함으로써 滿洲移民의 根本意義를 達成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國民總動員協議會 意外로急速實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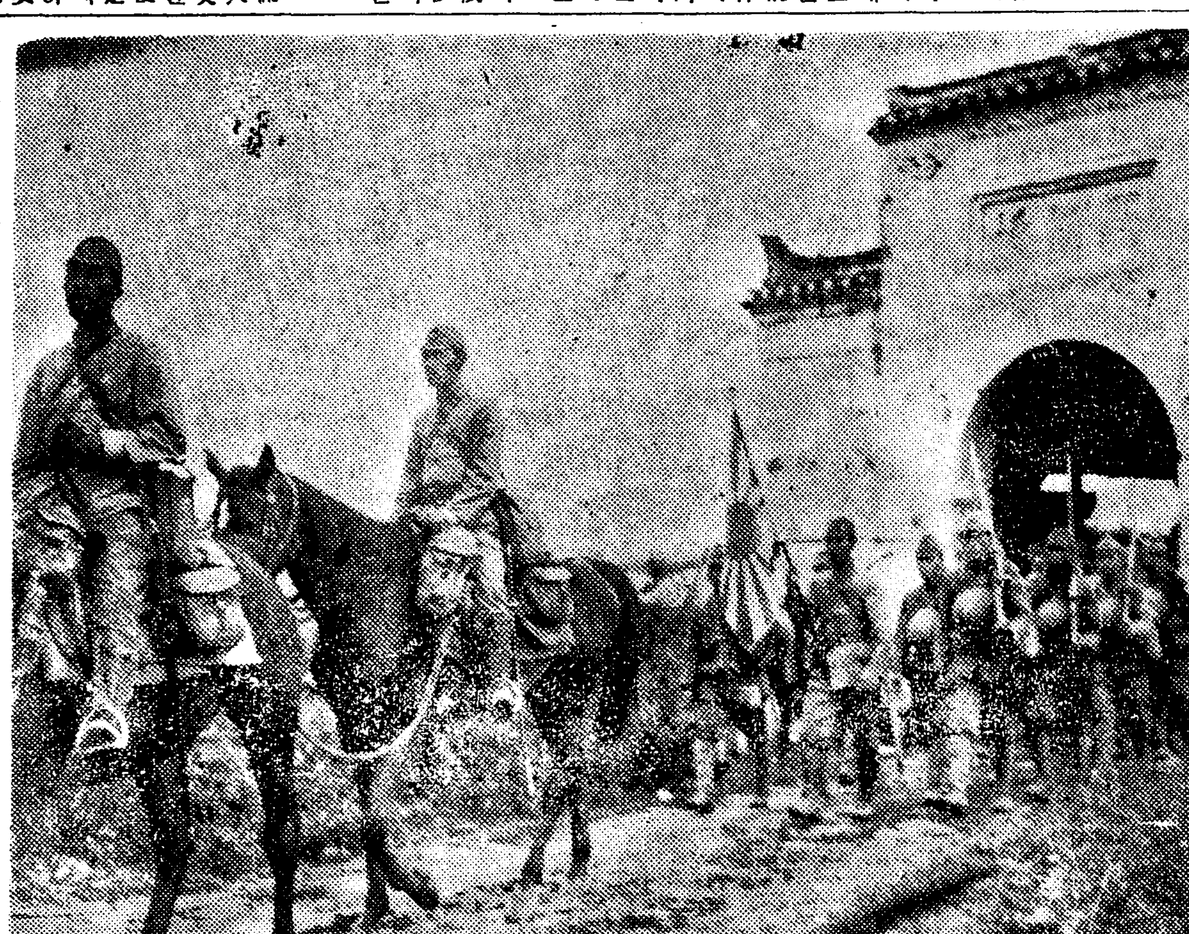
首相歸京後動靜極注目

【東京電話同盟】 近衛首相은 事變處理의 重大時局에 對應하야 國民總動員體勢를 組織化하고 擧國協力의 形態를 强化明確히 하고저 政黨은 勿論 國民各階層各團體를 網羅한 國民總動員協議會라 할만한 新組織結成에 對하야 各方面의 情勢를 省察愼重한 考慮를 하고 잇는 바 內外情勢는 何時까지나 荏苒度日함을 不許하는 現狀이므로 週末靜養次 滯在中의 熱海로부터 六日夜 歸京한 後에는 相當히 具體的 活動이 나타날 것으로 意外로 急速히 問題의 展開가 豫想되여 首相歸京後의 動向은 매우 注目된다 (寫眞은 近衛首相)

南洋委任統治에 聯盟異議提出?

帝國의 協力拒否通告로

【주네브五日發同盟】 帝國政府는 聯盟의 對日態度에 鑑하야 聯盟 諸機關과 完全히 協力을 斷切키로 되여 지난 二日 天羽國際會議帝國事務局長으로부터 聯盟事務局長에게 此旨를 發表한 바 南洋委任統治에 關하야 帝國政府의 今年度 年次報告書는 이미 聯盟事務局에 提出되여 잇스므로 目下開會中에 잇는 委任統治委員會는 日本委員不出席한대로 同報告書의 審議를 續行 理事會에 審査報告書를 提出키로 되엿다 그리고 聯盟側에서는 南洋委任統治地는 聯盟이 日本에 付與한 것이므로 今回 帝國政府의 決定으로 말미아마 法律的 及 政治的 立場으로 보아 南洋委任統治地位에 關하야는 將來 疑義가 發生하지나 안흘 것인가고 觀測된다



堂堂히 咸寧縣城으로 入城하는 我勇士 (航空便)

澤田駐伯大使에 勳章授與

【리오데자네이로五日發同盟】 伯國政府는 澤田節藏大使가 過去 四年間 駐伯大使로서 日伯親善에 盡力한 功으로 五日 同大使에게 南十字大十字章을 授與하엿다

東鄕新駐蘇大使 信任狀捧呈

【莫斯科四日發同盟】 新任駐蘇帝國大使 東鄕茂德氏는 四日午後零時半 크레믈린宮으로 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侍立下에 最高會議幹部會議長 카리닌氏에 對하야 信任狀을 捧呈하엿다

近衛首相七日朝歸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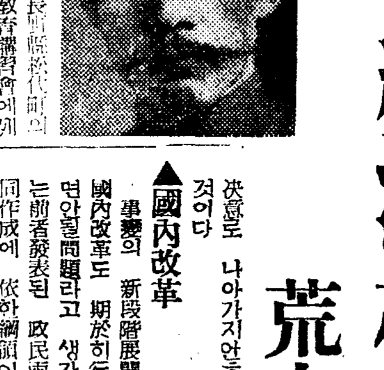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 週末靜養次 熱海에 滯在中이던 近衛首相은 六日 歸京할 豫定이던 바 事情에 依하야 七日朝 歸京키로 되엿다

支那事變論功行賞 現地調査次 下條總裁一行出發

【東京電話同盟】 支那事變關係論功行賞은 이미 第六次까지 發表가 잇서 于先 그 功績審査를 終了한 賞勳局에서는 下條總裁 宇都宮書記官等이 第二回째의 現地調査를 하기로 되여 兩氏는 同局 大出理事官 陸軍省 棚橋中佐 海軍省 栗北少佐等과 六日午後三時 東京驛을 出發하엿다 그 一行은 福岡에서 飛行機로 渡支 靑島를 經由하야 十日北京着 十一日부터 十八日까지 北支各戰線을 視察한 後 十九日부터 宇都宮書記官一行은 漢口攻略의 各戰線을 訪問 또 下條總裁는 滿洲各地 張鼓峰事件의 戰績等으로 모두 飛行機旅行을 하야 忠勇한 皇軍戰死 將兵의 武勳을 調査하고 今月下旬歸京 第七、第八回의 論功行賞의 準備를 進陟할 豫定이다

國內改革의 先着은 經濟機構로부터

荒木文相歸京車中談



【東京電話同盟】 長野縣松代町의 象山神社鎭座祭及敎育講習會에 列席한 荒木文相은 五日午後一時五十五分 篠井發 同六時五十八分 上野驛着列車로 歸京한 바 車中 當面問題에 關하야 左와 如히 말하엿다

▲長期建設

政府의 聲明及近衛首相의 談話에 依하야 帝國의 大方針이 明確하게 되고 國民의 마음도 沈着하게 되여 長期建設使命에 邁進하게 되엿다 英米其他外國人間에서는 所謂貧弱한 日本이 果然이 長期建設을 遂行할 수가 잇다 하는 點에 疑心을 가지는 者가 잇슬지 모르나 貧弱하면 貧弱한 대로 處理하여 가는 方途가 잇는 것이니 그와 가튼 일을 念慮할 必要는 업다 日本이 新東亞建設의 大業을 達成한 時에 비로소 日本의 眞實한 偉大性을 世界에 向하야 認識시키게 될 것이다 此際 歐米依存主義等은 斷然히 淸算하고 外交가튼 것도 確固한 決意로 나아가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國內改革

事變의 新段階展開에 伴한 國內改革도 期於히 行하지 안흐면 안될 問題라고 생각하나 나는 前者發表된 政民兩黨의 共同作成에 依한 綱領이 가장 適當한 案이라고 信하고 잇다 이만한 플랜을 完全히 實行한다면 其外의 所望은 업스리라고 밋는다 但 國內改革에 關하여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經濟機構의 改革인 바 統制一點만의 方法에는 贊成할 수 업다 一部에는 統制를 加하고 一部에는 自由放任主義를 取하는 政策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從來의 資本과 利潤의 見解를 是正하야 利潤만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觀念을 一掃하고 諸部門에 百하야 生産一點主義로 進하여야 損失이 잇는 部分에 對하여서는 政府가 保障하야 주도록 하지 안흐면 안된다고 밋고 잇다

▲新黨問題

이 問題에 關하여서는 나는 何等關知함이 업스나 그리 簡單히 處理할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今日의 政黨은 軍部의 不平不滿이 原因으로 沒落한 것인 바 陸軍에서 作戰의 必要上 各國의 政治를 不斷히 硏究하고 잇스므로 國內政治의 沈滯를 目睹하면 不滿의 念이 生할 것도 不得已한 일이다 그러고 今日의 政治는 軍을 除外하고는 不可能하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업는 일이므로 議會政治의 眞價를 發揚하려고 希望하면 軍과 政黨이 굿게 握手하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생각한다 또 社會의 各階層도 新情勢에 卽應하야 從來의 不平不滿을 버리고 새로운 出發을 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寫眞은 荒木文相)

004060

北支討匪着着奏功

【北京五日發同盟】 北支治安肅淸工作은 着着進捗 匪團은 續續殲滅되고 잇는데 最近의 掃蕩狀況은 如左하다

一、○○部隊는 三日未明 睢縣(開封東南八十키로)北方一里에서 約六十의 敵遊擊隊를 包圍 完全히 此를 殲滅하엿다 小林部隊는 膠濟線、靑州、北方五十里의 袁庄에서 約七百의 匪團에 大打擊을 與하엿다 福永部隊는 二日 靑島西北七十里되는 곳에서 二百五十의 敵匪를 急襲하야 潰走시켯다 岡村部隊는 一日臨邑及商河(濟南北方)附近의 匪賊을 攻擊하야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武昌長沙街道完全遮斷 敗走大敵을殲滅

【黑石河六日發同盟】 東北方으로부터 崇陽을 向하야 殺到한 長谷川 穗積兩部隊는 峻嶮을 克服하고 突然 敵의 側背面을 攻擊 五日午後九時 崇陽東方二十里 花京亭에서 武昌長沙街道를 完全히 遮斷하엿다 이 때문에 通山楠林橋方面을 敗走하는 敵第七十五軍에 屬하는 三個師는 退路를 喪失하고 西南方으로 潰走하는데 我軍은 이에 猛攻擊을 加하야 敵의 損害五六千에 達하는 殲滅的打擊을 주엇다

崇陽街道進出 岡崎、宮崎兩部隊

【咸寧에서 五日同盟特派員發】 岡崎、宮崎兩部隊의 猛擊에 依하야 通山、楠林橋方面으로부터 崇陽을 向하야 總退却한 敵은 突然 崇陽東北方一帶에 進出한 長谷川部隊에 依하야 完全히 退路를 絕斷當하야 大混亂에 陷하얏다 我航空隊及砲兵部隊는 이 敗走敵集團에 對하야 敵屍이 巨彈을 퍼부어 敵遺棄死體는 累累히 山野를 덥헛다

國民參政會第八日

【上海五日發同盟】 國民參政會八日째의 昨日會議에는 雜多한 問題가 提案되여 個中에는 乞食、遊民을 救濟하야 抗戰力量을 增大할 案과 가튼 可笑로운 것도 잇스나 大體로 地方自治의 各種民衆組織의 强化 國民의 自由獲得에 關한 提案이 만햇고 여기에도 共産黨乃至左翼人民戰線派의 活躍이 活潑하엿다

日曜氣配

▲期米 天候(晴) 變方共材料待에 見送 目先은 産地如何로 觀測되어 押目買氣合 氣配不變

▲株式 外交關係와 東西取引所株의 減配說에 嫌氣下押하고 目下玉整理進行中 氣配不變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今日本紙四面

八面鋒

◇ 엇든 젠氏는 九個國條約廢棄에 反對意思를 表明。

◇ 쫄롤氏는 九個國條約國會議를 開催하려고 考慮中。

◇ 九個國條約은 滿洲事變으로 休紙가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事實을 모르나。

◇ 잠을 자면 잠고대라고나 하지 잘도 안자는데 잠고대라면 보는 사람의 눈쌀이 쭈푸려지는데。

◇ 잠고대로 權益擁護를 꾀하여서 될 수 잇슬까?

◇ 엇재던 일로부터 酋歸의 外交陣活動이 期待。

◇ 東新의 落調는 웬까닭일까? 廣東과 漢口가 陷落하엿는데 不拘하고 戰勝景氣가 업스니 强力統制의 餘波인가 人氣解弛의 結果인가。

◇ 經濟界의 바로메터라는 株의 動向은 內外에 影響이 頗多。

◇ 二部敎授制의 緩和가 無望이라면 언제나 敎育하고 시픈대로 子任을 가르키여 볼 수 잇슬가?

◇ 잘아라야 살수잇고 잘배워야 알수가 잇는대 府當局의 再考 三思 如何。

人事·集會

▲田中千春氏(陸軍兵志願者訓練所助敎授) 伊勢神宮參拜旅行出發人事次來社

本社參觀

▲金海長有公立尋常小學校生徒六十七名(吳奇豊氏引率)

▲靑陽公立尋常小學校生徒 六十五名(李鳳求氏引率)

▲茂朱 富利公立尋常小學校生徒 二五人 (松原義人氏引率)

쳐코割讓地內로 匈軍遂進駐開始

【부다페스트五日發同盟】 維也納會議結果 匈牙利는 마침내 五日부터 五日間에 쳐코로부터 割讓된 地方占領을 行하기로 되여 五日午前十時 匈牙利全土의 敎會가 울리는 鐘소리와 함께 國境으로 集結한 匈牙利軍은 五隊로 分하야 一齊히 國境을 너머 보헤미아 地方 메도베·도보르개스及 루테니아地方의 우즈홀드 몬카체프及 베레호프로 向하야 堂堂進駐를 開始하엿다

世界週史

政府聲明發表

帝國政府는 武漢陷落後의 新段階에 對應하야 帝國不退轉의 態度를 中外에 聲明할 政府의 重大聲明을 十一月三日의 明治節을 期하야 中外에 發表하고 다시 近衛首相은 聲明의 主旨를 徹底히 하는 同時에 政府의 決意를 披瀝하고 全國民의 새로운 覺悟와 協力을 要望하기 爲하야 三日午前九時十分부터 AK의 마이크를 通해 全國에 放送하엿다 聲明의 要旨는 國民政府로서 抗日容共을 固執하는 限 帝國은 最後까지 擊滅할 것 新秩序建設의 目的은 東亞의 國際正義確立 共同防共의 達成 新文化의 創造 日滿支의 經濟的結合의 達成인 것 國民政府라도 從來의 政策을 一擲하고 그 人的構成을 改替하야 新秩序建設에 參加함을 拒否하지 안는다는 것等을 述하고 最後로 現代日本國民에 賦課된 責務를 强調하야 國民의 一大覺悟를 要促한 것이다

咸寧孝感占領

十月二十七日粵漢線桃林舖에 突入하야 粵漢線을 遮斷한 ○○部隊는 急追하야 敗敵을 追擊하야 二十九日午後 武漢南方赤城湖畔에 잇는 敵의 要衝 咸寧縣城을 占領하엿다 咸寧은 武漢서 岳州長沙方面으로 通하는 粵漢線上 最大의 要點으로 잇는 敵에게는 一大打擊을 주게되엿다 孝感은 京漢線南部要衝으로 漢口西北約五十키로에 位置하야 일즉 敵武漢防衛戰의 外郭陣地를 構成하엿고 武漢陷落後에는 漢口敗退敵의 大集結地엿든바 武漢北方地區를 西方으로 向하야 追擊邁進한 倉林部隊는 三十日午後 同地에 殺到한 優勢攻擊을 加하야 激戰을 交한 다음 同日內로 同地를 占領하엿다

南京會議開催

維新政府梁鴻志氏 臨時政府王克敏氏以下 北京南京兩政府代表는 十一月二日부터 南京에서 反共救國旗幟下에 中央統一政權樹立中國聯合委員會를 開催하고 武漢陷落後의 更生新支那의 諸情勢에 對한 對策을 協議한 後 北京南京兩政府 聯合委員會의 第二回宣言을 하고 二日의 宣誓式으로 發表하엿다 武漢陷落에 依하야 漢奸을 指摘하고 各地方의 救濟와 新支那建設할 것을 述한 다음 兩政府는 强力한 中央統一政權樹立에 力할 것을 力說한 것이다

匈쳐紛爭解決

쳐코政府가 匈쳐紛爭調停을 獨伊에 依賴한 데 對하야 獨伊兩國이 受諾한 結果 獨伊兩國外相及 쳐匈兩國外相及專門委員은 今月二日 維也納벨베데一러城에서 調停會議를 開催하고 그 結果 二日夜에 至하야 匈牙利쳐코兩國代表는 獨伊의 調停案을 承認하야 月餘에 亘한 匈쳐紛爭도 이에 圓滿한 解決을 보게되엿다

防共協定成立 記念國民大行進

【東京電話同盟】 日獨伊防共協定成立一周年을 記念하야 六日午後一時부터 防共協定記念會主催 東京市及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後援의 『記念國民大行進』이 帝都에서 擧行되엿다 參加團體는 都下男女中等學校 大學 高等專門學校生徒學生 聯合靑年團 在鄕軍人會 防護團 愛國 國防兩婦人會等 三萬으로 正午 日比谷公園에 集合 皇宮遙拜 國歌合唱後 國際反共聯盟理事 井田男爵의 人事가 잇섯고 午後一時 行進을 開始 陸海軍軍樂隊를 先頭로 日比谷公園을 出發 日比谷交叉點 馬場先門을 經하야 二重橋에 나와 萬歲를 奉唱하고 다시 櫻田門 外務省 獨逸大使館 議事堂을 經하야 虎門으로부터 伊太利大使館前에 나와 午後四時 日比谷公園에 到着 夕刻에 萬歲를 三唱하고 解散하엿다

王克敏主席等 北京에 歸還

【北京五日發同盟】 中華民國政府 聯合委員會第二回會議에 出席하기 爲하야 南京에 赴한 王克敏首席委員等 一行은 五日午後二時五十分 飛行機로 北京에 歸還하엿다

國務長官聲明에 米國內各紙意外로冷淡

【紐育五日發同盟】 紐育朝刊各紙는 九個國條約에 關한 헐國務長官聲明을 重大視하지 안코 第二面以下에 意外로 적게 取扱한 바 紐育타임스紙까지 第三面에 一段도 못되게 取扱하엿슬 뿐이다 『헐國務長官은 單只 原則을 거듭 言明하야 이를 記錄한데 不過하며 別로 積極的 政策을 取하자는 안흘 것이다』라는 消息通側 觀測이 的中된 形便이다 但 이로써 米國은 軟弱하다고 解釋함은 躊躇되고 잇다 적어도 米國自身의 權益에 關한 限 可及的 速히 誠意잇는 態度를 表示하는 것이 日米通商 大局上으로 보아 要望되는 바이다 卽 헐國務長官이 列國과 共同動作을 取하기를 躊躇하는 것은 共同動作의 效果를 疑心하는 까닭이요 自國 權益의 擁護에 對하야는 全然 別異의 單獨手段을 取할 수 잇는 立場에 잇는 것이 强調되고 잇다

죠지陛下、日支紛爭 卽時終了御希望

英下院에 勅語下賜

【倫敦四日發同盟】 英國議會는 四日로써 一日閉會하고 八日다시 新議會에 入할 것인 바 閉會式에 際하야 죠지六世는 勅語를 發表하시고 特히 日支事變에 關하야 左와 如히 述하섯다

余는 日支間에 敵對行爲가 尙今도 繼續되고 兩者의 戰鬪員에 多大한 生命의 損傷을 齎來하엿스며 또 第三國의 權益에 甚大한 損害를 與하고 잇는 現狀을 遺憾으로 여인다 余는 右紛爭이 速히 終了하기를 衷心으로 希望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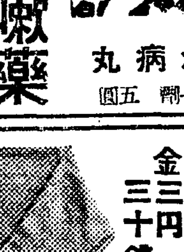
따금따금하고 아픈 痔의 苦痛…… 肛門糜爛의 療法!! 速速히 낫는다

痔는 日常의 活動力을 減殺하며 起伏에도 困難을 주는 實로 귀치안흔 病魔이다

◆痔疾의 治療는 오랜 病源을 探究하야 冷暖의 格差 濕氣 氣候風土에 最適한 湯의 痔疾藥을 優秀第一로 推奬합니다 二百數十年의 옛날 蝦夷松前地方에 肛門糜爛이라는 風土病이 蔓延하야 肛門의 內部가 腐敗하야 차레로 죽어가는 悲慘한 모양을 心憂한 皇漢藥의 典醫가 어떤 特殊한 皇漢藥으로써 救出하엿다는 歷史를 傳하는 貴重한 皇漢藥에다 現代醫化學의 粹를 應用하야 製出한 湯の川痔藥은 惡疾頑固한 痔疾일쑤록 效力이 速하고 아픈 것을 急速히 업새는 痔疾專門藥으로써 優秀藥으로 한번 試用으로써 名聲을 博하고 잇는 것입니다 ……

芝區虎の門(南佐久間町一丁目)
函館市外湯の川町 丸越藥品株式會社
電話四〇八〇番 振替函館三五〇〇番
全國有名藥店에 有함

皇漢名藥『白王華』는 本間醫學博士의 推奬하는바로 左記諸症에 百發百中하오니 患者諸賢은 白王華를 使用하시와 一日이라도 速히 全快하심을 伏望합니다
(手術로도 낫지안는 분은 꼭 한번 使用하시옵)
神經痛、연주창、骨膜炎、腰冷痛、肋膜炎、盲腸炎、關節炎、打撲傷、火傷、凍傷、痔疾、百日咳、中耳炎、胃腸病、腎臟病、脚氣、肺炎
一郡一名限代理店募集 (市內는 一町一名) 患者諸賢의 福音
藥價 五〇·九五·二、三〇·四、五〇
申込은 京城府社稷町二八一番地 株式會社 樂有堂朝鮮配給所 振替京城二五〇五三番



喘息嘽嗽藥
積에는 敵積丹
國境大藥房 安東市一番通五丁目 振替京城二三五一番 奉天四三九一番

淋疾斷根藥
淋病丸 一劑 五圓

梅毒斷根藥
淸導補腎丸
商報進呈

强性强精藥 精力衰退와 早漏에 百發百中!

首印毛糸 首印編カタン糸 編織縫糸 半문文化ヤン 꼰실 各種毛糸 ホリムパス綿糸 手藝品一切
首陽店

無料로通知함
喘息
森本作市

實用防寒具と皇軍將兵皆様へ 溫かい慰問防寒具の發賣!!

赤丸印 輸入極厚地仕立 防寒チョッキ 一枚値 金一円八十錢
羅紗生地 防寒丈夫向 羅紗チョッキ 一枚値 金一円七十錢
眞綿純白 愛型チョッキ 一枚値 金一円四十錢
毛メリヤス 前割チョッキ 一枚 金二円四十錢 毛メリヤス 冠ダルマチョッキ 一枚 金二円三十錢
極上毛特品 アンダー 金三円九十錢 再織厚地 アンダー 一枚値 金二円二十錢 各一枚値
再織毛厚地 トックリアンダー 金二円二十錢
極上毛特品 トックリアンダー 金三円九十五錢
毛編再織厚地 防寒ズボン 一枚値 金一円九十錢
純綿 防寒 白ズボン 一枚 金三円三十錢
コットン毛メリヤス 二號 金三円六十錢 三號 金三円九十八錢 四號 金四円九十錢 各上着一着値段下ズボン同値段故御注文の際御指定下さい
腹卷 再織毛實用ゴム針拔 一枚 金六十錢 高級スモス織ラクダ色 針拔ゴム織ラクダ色 一枚値 金一円八十錢
外出用實用防寒鬼スエター 金二円二十錢 金三円九十五錢 優撰特品 一枚値
なぜ安いか 國策に鑑み製造店より直接皆様に中間手數料が不用で然かも東京一の製産地大量製造大販賣安價御用命が願ます
御注文は 組合團體御下命大歡迎但し實切の場合は御斷り申します 賣切れない間に必要品は至急御注文下さい ハガキで品名數量御記入下さい代金引換で御送り申します但し送料は買主負擔です
實用極地寒地向として大好評品
時代の尖端を步む當店の此の直賣
製造直賣 伊藤彦商店直賣部
名古屋市千種區吹上町一丁目
電話千種局九四四番 振替名古屋一三大九二番

安柄昭氏提琴 再請獨奏會

'팬'의 底不知歡呼에 鬼才·感激의 再登壇
本社主催로 來十五日府民館에서
樂壇空前의 旋風的人氣!

천분(天分)과 정열(情熱)과 노력(努力)으로써 조선의 악단—을세계수준에까지 이끌고 나아가려는 우리의자랑 안병소

(安柄昭)군의 바요린독주회를 오는보름날저녁 부민관에서 다시열린다 불구(不具)와가난의 역경을 돌파하고 독일에머물기사년 세계의대음악을 갈려내대선생의 문하에서이룬위진 그의예술을 지난이십팔일본사주최로 공개햇슬때 이귀재의 고국에바치는 첫소리를 듯고저 전조선악단의 흥분과 감격은실로 폭풍적이엇든 것이다 이날그의 전력량을 기우린 초인적인 연주력이 마다청중의 가슴을 울렷고 왼상처럼 와고를 어 그연주회를 기대하야 이런날 은회흥의 비상한흥종 은 마침내 비상한 감격으로 써 새사람의 새예술을 감상한것이엇다

그날 그자리에 모혓든 청중이 저마다 차마 자리를떠나지못하야 한번더 들어지다 고 재청삼청의 요구도 간절하엿거니와 전악단의 간절한 독주회재청에는 안병소군도혼연히 이간절한 앙청에 응하기로되어 일간 그예를 볼바이 업는「재청독주회」를 열기로한것이다 이리하야 고국의악단을 세계수준에 올려노흐려는군의 정성과 노력은 지난번제일성에서 좌하든 금자탑에 또다시 귀하고갑가는 한층을 더하고저 한번더 악상(樂想)을가다듬고 잇는중으로 팬들의열광적 환호에 회답하는조선악단 공전의 독주회가 될것이다

(사진은안병소씨)

明日부터 國民精神作興週間
明朝奉告祭爲始 總力戰意氣宣揚
克己精勵로 勤勞報國强調等 一齊實施할各種行事

칠일은 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의 첫날이다 조서환발기념일(詔書渙發記念日)인 십일을중심으로 국민정신작흥주간을 실시하는것은 대개매년하는 년중행사이지만은 금년의 이 주간은지는 지난(支那)사변발발이후 이미제이년을마지한주간인만치 그의의가 더욱깁흔바이다 그리하야 금년은특히 칠일부터 십삼일까지 일주간동안 총후국민의 긴장된정신을 실은 행사를실시하야 사변에 임하는 국민의정신을 더욱견고히하는동시에 대비(?)가총력전(國家總力戰)에 대비하는 기분을 작흥하고저 이 주간동안실시할 사항의순서를보면

第一日(七日)皇軍感謝日
第二日(八日)勤勞報國日
第三日(九日)資源愛護日
第四日(十日)詔書渙發記念日 時局再認識日
第五日(十一日)克己精勵日
第六日(十二日)家庭報國日
第七日(十三日)體力向上日

대개 이상과가튼요항으로 전조선일제히 실시하는것인데 제일일 경성에서실시할행사는 다음과갓다

京城府 京城軍事後援聯盟 國民精神總動員京城聯盟 京城敎化團體聯合會

의주최와 朝鮮總督府 京城商工會議所 京畿道 朝鮮防共協會京畿道支部 京城府內各新聞社 等各기관의 후원으로 오전아홉시삼십분에는 조선신궁 동쪽 신사삼십분에는 경성신사에주최단체와 후원단체의 관계자가참열하야 국민정신작흥주간 실시봉고제를 거행할터이고

▲각학교대표자 청회기타각종단체에서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 참배할것

▲경성군사후원연맹에서는 출정군인유가족의 위안회를 개최할것

▲청회기타각종단체에서는 가장가까운곳에잇는 방인부대를위문할것

▲경성군사후원연맹에서는 상병(傷病兵)을위문할것

週間中記念放送
JODK의프로決定

칠일부터 실시되는 국민정신작흥주간중에 경성중앙방송국에서는 다음과가튼「푸로」로기념방송을하기로되엿다

▲七日 講演 國民精神作興週間을當하야 武漢攻略의 意義를 午後六時二十五分부터(三十分間) 陸軍中將 深澤 友彦

▲八日 講演 時代와英雄 午後六時二十五分부터(三十分間) 城大敎授 松月 秀雄

▲九日講演 題未定 午後七時三十分부터(二十分間) 友松 圓諦

▲十日 午前九時부터 詔書奉讀式實況—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午前中繼

▲十日 午後三時부터(二十分間) (總督夫人) 南 嘉久子

▲十二日 午前十一時부터總督主催의敬老會實況—龍山官邸로부터

▲十三日 講演 題未定 午後六時二十五分부터(三十分間) 大野政務總監

그리고 全國中繼로서는 十日左와如한 放送이잇다

午後六時 兒童時間 高島 米峰

午後七時四十分 講演 內大臣 湯淺 倉平

▲十日부터三日間 午前七時三十分 國民精神作興에關한 詔書의奉讀과講解 川村 理助

朝鮮軍事後援聯盟 皇軍慰問演藝團
八日北朝鮮과 北支에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의 황군위문연예단(皇軍慰問演藝團)은 사입연산(龍山)을출발하야 북조선의 각지로위문을 행할터인데 두반에나누어서 북조선의군대와 북지(北支)의전선의 각부대를찾아 위문할터이다 일행은 칠일오후일곱시에 나남을떠나 일부는 북조선 각지로 가고 ...

高齡者招待
最高天安尹行稷氏(百歲)

오는십일일 칠일 부터의국민정신작흥주간제육회의 십이일실시에 앞서 오는십일일오전십시부터 용산 총독관저에서 팔십세이상 고령자를초대하고 위안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각군별 고령자명은 아래와가튼데 함북만은 아직결정을보지못하엿는바 경기는 오십명 충북 삼십명 충남 오십명 전북 오십명 전남 오십명 경북 오십명 경남 오십명 황해 사십명 평남 오십명 평북 오십명 강원 오십명 함남 오십명 합계 오백칠십명으로 충남천안의 윤행직씨의 백세가 최고라한다

▲趙召史(九二) ▲崔氏(九三) ▲滑池ノ夫(九○) ▲中村スズ(九○) ▲中村이도(九三) ▲洪思七(九三) ▲洪姓女(九三) ▲金東寶(九三) ▲吉濱(九二) ▲崔氏(九○) ▲中川三郎(九○) ▲稻垣(?) ▲李圭相(九○) ▲藤井(?) ▲崔氏(九○) ▲李召史(九三) ▲鄭漢善(九三) ▲李 氏(九一) ▲金秉淑(九二) ▲靑木 熊太郞(九三) ▲高木ヘイ(九三) ▲橫田奈律(九三) ▲金九三(九三) ▲閔丙興(九二) ▲南氏(九二) ▲韓義光(九二) ▲徐相勛(九二) ▲金善本能吉(九二) ▲川井嘉市(九二) ▲松岡丑太郞(九三) ▲武岡丑太郞(九三) ▲岸本スガ(九○) ▲鄭衛鎭(九二) ▲金煥(九二) ▲李膺淳(九一) ▲趙義成(九一) ▲沈逸寶(九一) ▲千命秀(九二) ▲趙勳植(九○) ▲安昞欽(九三) ▲韓明子타(九○) ▲根岸구라(九○) ▲宋寅正敎(九三) ▲崔秉億(九二) ▲金尉愛(九○) ▲藤原今生(九○) ▲翠靈南山(九三) ▲申鎭永(九三) ▲山西야스에(九○) ▲楊宗護(九三) ▲松原스요(九三) ▲金興乃(九三) ▲增田미에(九二) ▲吳龍濟(九二) ▲李天汝(九○) ▲崔明瑛(九二) ▲元正顯(九三) ▲鷹野菊之助(九三) ▲朴來鉉(九○) ▲小福煥(九三) ▲鄭允初(九○) ▲司潤發(九○) ▲兪致禎(九○) ▲李鳳賓(九○) ▲趙景齊(九○) ▲崔永宅(九○) ▲金敦植(九○) ▲朴弼玫(九○) ▲李鍾鉉(九○) ▲柳井嘉瀛(九○) ▲鄭信國(九○) ▲鄭命洙(九三) ▲李淑恒(九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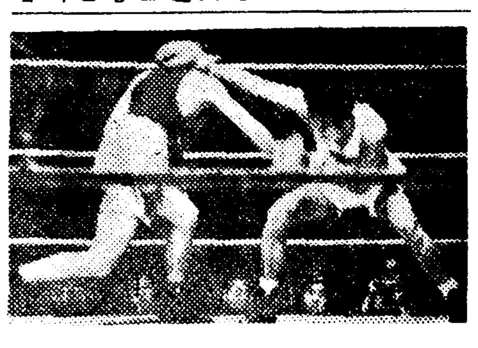
▲金泰漢(九三) ▲朴政淳(九○) ▲李道源(九三) ▲韓瑞賢(九二) ▲李得心(九一) ▲柳濟鐵(九二) ▲李啟熙(九三) ▲杉原榮(九○) ▲李象賓(九二) ▲金昇燮(九三) ▲柳?(九○) ▲李祖濟(九一) ▲鄭學來(九一) ▲金正圭(九一) ▲宋仁酒(九三) ▲平田重吉(九○) ▲金潤局(九三) ▲尹錫五(九一) ▲金周煥(九三) ▲尹行稷(一○○) ▲邊重潤(九三) ▲李福順(九三) ▲木下丑松(九三) ▲西村시즈(九○) ▲田

高齡者大會員에 鐵道賃金五割引

오는십일일 총독의초대로 경성에서열리는 전조선고령자대회(高齡者大會)에 출석하는 노인들을위하야 철도국에서는 오는칠일부터 십일일까지 경성여왕복에대하야 이등과삼등의 차임을 오할인하기로되엿다 흥행기한은 (승차권발매한날로부터 십

그릇된"青年進路"
가난한篤學青年으로竊盜犯行하고 贓品行商中에 被逮

평남문천(平南文川)출신의 향학열(向學熱)은 유위청년의 진로들이가로막히엇다—평양서에서는 수일전부터 신양리(新陽里) 금서려판(錦城旅館)에 투숙하며 만년필을 행상하고잇는 전주희청(花園町)에번지 리선길(李善吉)(二○)을 수상히여기여 검거취조하엿더바 그는 다음과가튼 이스러진「청년의진로」를 자백하엿다 그는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학을하며 수험준비중이엿는데 돈이업서서 사고시프렌도 사지못하고 항상우울히어지던바 전달중순경남원에 전주거리를거닐면중 어떤책방가게문이열려잇스므로 책을훔칠생각이 문득일어 칠성하엿다가 만년필이 다수진열되어잇는것을보고 차라리이것을 훔처다파러 읽고시픈책을 사리라생각하고 팔십이본 (가격약이백원)을 절취하여가지고 이것을 분매하고저 평양에와잇든것이라한다



拳鬪界十二傑 今夜最後爭覇
滿都팬의人氣는沸騰

比島遠征代表는?

拳鬪朝鮮의 最先列에나설 猛將十二名이 登場하야 今年度選手權을 붙려 比律賓遠征代表의 榮譽를다투는 本社後援의 第五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最終決勝戰은 마침내 今六日午後七時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열리게되엿다 各級의 決勝者들 一擧하면 어느級을 勿論하고 戰前豫想을 許치안으리만치 實力이伯仲하다 플라이級의 金仁泰君과 神宮大會의 覇者梁政模君의 同志戰은 비록가든道場에서 기러낫다하나 弗에는 正正堂堂이 가지힘을다하야 對戰하는것이 아마듀어의 高潔한精神이니만치 兩君의 激戰이 期待된다 밴탐級은 어떠한가 比島遠征의體驗을가진 斯界의 至寶金明錫君이 無名勇士高大云君과 對時케되엿는데 金君의勝利를 豫想케한다 다음은 페더-級인데 이날밤의 興味는 此一戰에 總集中되고잇스니 猛將鄭福壽君과 地方神宮大會의 優勝者朴慶善君의 게임은 稀有의亂打戰을 演出할것으로 審査員은 判定에 苦心할것이다 라이트級은 韓龍河君과 成漢慶君、웰터-級은 覇者李敎應君과 朴順基君, 미들級에는 崔泳學君과 金永福君의 對時인데 各級을通하야 모두 拳鬪가 가진 潛勢力을發揮하야 興味를자아낼것으로 滿都拳鬪팬의 人氣는 오로지 이決勝戰에 集中되고잇다

◇各級決勝멤버

【플라이級】梁政模(東拳)…金仁泰(東拳)
【밴탐級】金明錫(朝拳)…高大云(無所屬)
【페더-級】朴慶善(靑拳)…鄭福壽(東拳)
【라이트級】成漢慶(朝拳)…韓龍河(東拳)
【웰터-級】朴順基(東拳)…李敎應(靑拳)
【미들級】金永福(朝拳)…崔泳學(靑拳)

對北支籠球戰 京城OB苦戰豫想
明夜로迫頭한

중화민국신민회(中華民國新民會)가 派遣한北支籠球團一行은 그동안神戶、大阪、京都、名古屋、東京等地를 轉戰한後 歸途 明七日午後三時十分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야 同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室內코-트에서 京城OB軍과 對戰할터인바 OB軍은一行의來征을앞두고 猛練習을 거듭하야 自信滿滿하야잇스며 北支軍은優

漢藥法을制定
漢藥調査會의藥草性況、服用法等研究成果
=外國藥品輸入防止의一助策=

조선내한약의 품질향상과 위조품구축을 단행하야 수입외국약에 대항하는동시에 갱생한약의 이용에의하야 전시의료기관의 충실을목적으로하는 총독부한약조사회(漢藥調査會)는 조선최초의 한방의학(?) 약초조사원회 ... 소화십사년도에는 조선성(?)기사(津村漢藥硏究所木村技師) 석월(石月)곡강사(谷講師)가래박사(加來博士) 안본경성약전교장(安本京城藥專校長)등사계권위자를 망라하야 일삼십종의 약초에대하야 원식물명(原植物名)성황(性況)시험법、저장법、복용량등을정확히 기록한성안을 어덧스므로 이것을 기본으로하야한약법(漢藥法)제정에 진출하기로되엿다 이조선최초의 한약법은 사개년계속으로 완성할계획인데 소화십사년도에는다시 나른 일백이십칠종의 한약조를 조사연구할터이요 십오、륙양년도에는 동물성、식물성한약 삼백종에대하야 조사연구를 완료한후 한약법창설을 계기로 한약의적극적장려를 도모하야 외국약품의 수입을 방지할방침이다

八戶丸破船

「호노루루」오일발동맹】일본「로들」어선팔호환(八戶丸)(二○톤)은 지난이일「밋드웨-」섬서쪽 오십해리(浬)의지점에 미국해군 구축함이 구조하고 「큐어」섬북쪽에서 파선되어 승조원이십오명은 해병대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에 구조하얏다 이에대하야「호노루루」제국총령사관에서는 구조선을 다시조사한결과 미해군측 일본어선은 지난이일에 이번에 조사하엿으나 원의행방은아직판명되지안엇다

入營압둔志願兵
伊勢神宮參拜旅行

지난유월십삼일에 입소한 조선총독부육군병지원자 훈련소제일회생도 이백이명은 그동안조선의 훈련을 마치고 오는 얘기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서 근근동련(?)을 마치고 입영(入營)하기에 이르럿는데 이번 이들지원병으로 하여금 한층더국체관념을 철저케하고 경성과 기타에서 참된황국신민의 자질을 향상하도록하고저 이세신궁(伊勢神宮)참배 여행을 하기로되엿다 즉 각도당국의 후의와 지원병후원회와 군사후원 련맹의 원조를 바다 칠일 경성을 떠나 일주일의일정으로서 참궁(參宮)여행을 하기로된것인데 이여행 기간이국민정신작흥주간에 해당하므로 여행중이라고 할지라도 그주간행사를 항상 염두에두고 실행하여서 이여행을한층더뜻기푸게한다고하다

色鉛筆

쌀갑세 작구만 을라가니 정말 얼마 생활하는 소시민들의 곤경이 이를데 업다 ▲그러나 농사를 추정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싼쌀을 사러 들어가는 소비자보다도 또 그 만큼비싸게팔아서 다 반면에 그만큼 곤경의 손해를보는 이런것이 잇다 수한농민이 저옥히 송증(?)흘리 사가된다면 그다지 낫서도아니련만 ▲사실은 그러치안하서 소위 정조공판제도의 강화로 말

미야 쌀값이 생산지에서 그대로앉은 재고이서서 요중한 천(川)동각지의 곡산에서는 대기집에어거되엿고 ▲이때문에 피방을 다하야 생산한 농민들이 그아수운 돈을 빼리살수가 업고 또 출하에 엽스니곡분상이생사람에 나갈수가 업고 정국은 소매상도 라저이요 일반소비자들도 부족한 물건이비싸저가는 법이라 비싸한쌀을 사먹게되니▲ 농민도 상인도 소비자도 손해를보게되어서야 될수잇는일이냐 ▲이천사흥회의소에서 공판제도를 위화하야 아주자유판매(?)식시에 한다는 지청을했다지 어떠케던지 뭇다품손해와 곤난이혀도록 방침을 다해주어야 될터인데……。

日曆

▲十一月七日(月曜)舊九月十六日 ▲壬戌 癸卯 ▲日出 午前七時三分 ▲日南中 午後零時十七分 ▲日入 午後五時卅一分 ▲晝間 十時廿七分 ▲月出 午後五時一分 ▲月入 午前六時一分 ▲滿潮(仁川)午前四時十分 午後四時四十五分

今夜의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 하-모니카 기타-二重奏 ▲六時二五分 講演(?) 國民精神作興週間을當하야… ▲七時 뉴-스 ▲七時三十分 演藝 『小說의人間味』 ▲七時 뉴-스 ▲七時三十分 라디오小說 ▲八時四○分 京城放送局 「入門」 ▲九時三十分 大阪에서中繼 ▲九時 九州地方競演大會實況—朝鮮日報社 ▲九時三十分 뉴-스 解說 ▲十時 東方으로보내는 뉴-스 ▲十時十分 레코-드音樂

北支軍對OB 九일밤ㅡ戰

三十九대二十二로 一點差로惜敗하엿스나 北支軍은이미 九回의계임에 어느이바의 敗戰의 經驗으로보아야 O B軍을누루기 어려지안을 것이오 北支軍의 戰略은 「블록」파 「연문(?)」의 明朗한판단에 ...

實業卓球大會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八回全朝鮮實業卓球選手權大會(團體과個人戰)은 六日午前十一時부터 東崇町大學醫學部講堂에서 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갓다

【遞信】勝3…0【府廳】
鄭鎭植 3…2 朴賢奎
石完鎬 3…0 白潤輔
文錫瑱 3…1 李聖鎬

【總府A】勝3…0【京電】
朴在檣 3…2 丁大天
李在雨 3…1 趙潤九
李東健 3…0 崔福來

【專賣A】勝3…0【總府B】
李順昱 3…2 邊龍煥
金相麟 3…2 金容喆
李 英 3…1 鄭鎭烈

【仁川俱】勝3…1【專賣B】
三 戶 3…0 朴庚勳
上 野 3…3 細 引
寺 田 3…1 八 田
近 藤 3…0 久 野

【準決勝】
【總府A】勝3…1【仁川俱】
水 島 3…1 三 戶
朴在檣 1…3 寺 田
全成鎬 3…0 近 藤
李在雨 3…0 上 村

【專賣A】勝3…0【遞信】
陰炳柱 3…0 石完鎬
李順昱 3…0 山 本
金相麟 3…0 文錫瑱

【決勝戰】
【總府A】勝3…0【專賣A】
全成鎬 3…2 李順昱
李在雨 3…2 金相麟
朴在檣 3…0 李 英

專門卒業生送別庭球

明專專門校卒業生과 在學生의 庭球戰은 六日午後二時부터 府廳코-트에서 擧行한바 夕刊마감까지 戰績은 다음과갓다

【卒業生】【在學生】
金礼燁·任元鎬 3…4 曹晉五·金鋼遠
趙同熙·松本 1…4 石田·李仁俊
申東鉉·金魚水 0…4 金永河·金東烈

學生陸上
朝鮮學生陸聯主催

聯盟五週年記念陸上競技大會는 六日午前十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하얏는바 夕刊마감까지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四百米決勝】1磯村(大豫)五六秒二 2高橋(大豫)五六秒二 3淸水(高工)4山口(醫專)5野田(同上)
【百米決勝】1鮮于燁(大學)一一秒一 2洪明辰(醫專)一一秒一 3磯村(大豫)4小川(高工)5伊藤(醫專)6荒川(大豫)
【高障碍決勝】1姜東式(大豫)一七秒四 2河野(大豫)二〇秒二 3廣本(醫專)4小川(高大)
【投圓盤】1高橋(大豫)二五米九 2福谷(醫專)二五米八七 3富岡(藥專)二五米六〇 4橋口(大豫)二五米〇二 5上野(醫專)二四米五〇 6馬屋(醫專)二三米八六
【走高跳】1洪明辰(醫專)一米六五 2廣本(同)一米六〇 2原(大豫)一米六〇 3小川(高工)一米六〇 5韓文植(大豫)一米五五 6張歡榮(醫專)一米五五
【千五百米決勝】1井野(大豫)四分五九秒三 2岩永(同)四分五九秒五 3久保(醫專)五分〇五秒七 4王寅根(醫專)5朴英煥(高工)6小林(藥專)
【投砲丸】1富岡(藥專)九米九〇 2朴商燮(大豫)九米六八 3福谷(醫專)九米三一 4橋口(大豫)九米一六 5高橋(大豫)九米一一 6上野(醫專)八米八七

明日의運動

▲蹴球=朝鮮蹴球協會主催 第十九回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中學部決勝…培材中學對中東學校 午後四時 京城運動場(觀覽料=一般廿錢、學生十錢)

▲籠球=北支籠球團對全京城OB對抗籠球戰 午後六時半 鐘路青年會室內코-트(觀覽料=一般三十錢 學生二十錢)

天氣豫報

오늘은흐리고 小雨 明日은흐리겟다

昨日最高 十五度五 今日最低 四度五 同正午 九度二

明日 私立初等學校聯合學藝會
府內卅三學校參加
七日午前十時開幕 於 府民館大講堂

出演種目 兒童劇·遊戲·童話·童謠·朗讀等

本社後援

按摩로안낫는 肩臂痛의 原因은深部에

肩臂痛의原因이 血液의 汚濁에 血液이 깨끗치못한 ... 按摩하거나 膏藥으로 一時的 그原因은 血液을除去하지안코 그原因이 血液의 濁한것을 맑게하면 그原因을 除去하지안으면 ... 有名한藥學博士의 研究로 된 リキシン「イマゾ」는 ...

耳鳴、頭痛、上氣、眩暈、不眠、어지럼、숨가뻐、便秘等에 ... 血液淨化의研究所로申込하면 新研究의血液淨化療法進呈합니다

漢方醫學藥學의 實際 漢藥種商講義錄 新版出來 京城府 明倫町 漢藥種商研究社

모생다우 毛生タム 京城府 ...

寒冬의 스포-ツ 銃後의保健 兎と小鳥が面白いほどよく獲れる安全な遊び

純絹糸製 絹 ギサウ 特製 絹 みすか

京城南大門通二丁目 久 網久商店 電話本局六二五番 振替京城 ...

自動車 朝鮮第一自動車學院 學生大募集 京城府西大門町 ...

民生部大臣認可

本科 奉天工業學校生徒募集 土木部 電氣部 機械部 測量部 ... 奉天市北陵大街 ... 寄宿舍設備アリ

平安南道 貨物自動車統制營業廣告

業者一同啓 御大方各位愈々御隆昌之段奉慶賀候陳者本道內貨物自動車運送業者ハ現下非常時局ニ鑑ミ道御當局ノ御指導ニ基キ經濟統制ノ國策ニ順應シ運輸報國ノ赤誠ヲ盡サムカ爲メ去ル七月以來統制合同ノ趣旨ニ立脚シテ各方面ノ御援助ヲ蒙リ玆ニ全朝鮮各道ニ率先シテ十月十五日本社創立總會開催ノ運ビニ至リ其ノ他法規上ノ手續ヲ履行中ノ所漸ク完了致候ニ付來ル十一月六日ヨリ準備ノ都合上本社創設ノ主旨ヲ體得致シ專ラ御得意樣本位ニ業務ニ精勵可仕ハ勿論車輛ノ充實、配車ノ圓滑ヲ圖リ以テ時運ノ要求ヲ充スニ勉メ一生懸命ニ努力可致候間何卒御引立御用命ノ程伏而祈上候

先ハ開業御挨拶旁々御願迄草々敬具

昭和十三年十一月 日

平壤府里門里五九番地 平南陸運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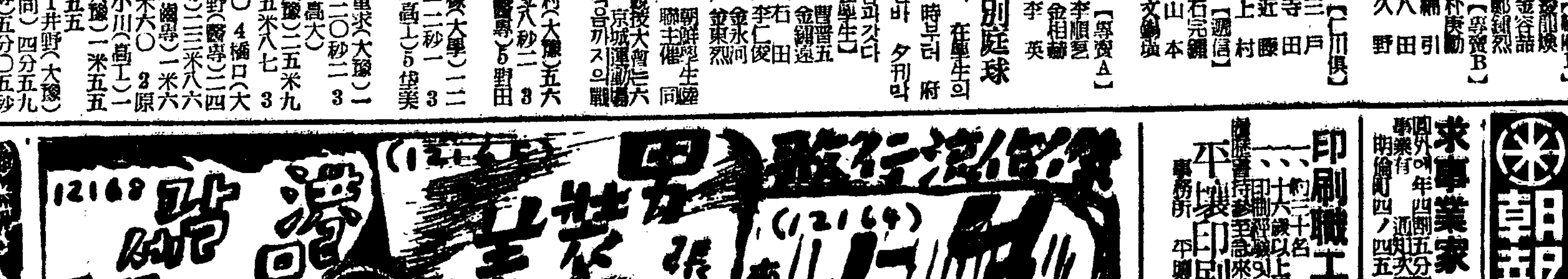
取締役社長 松井民治郎
專務取締役 守屋柳一
取締役 古下藤周
同 金口冕壎
同 韓昌三
同 山斗榮
監査役 郭丸芳利
同 金箕直五
同 金在淳
同 吳

會社概目
資本金總額 金八十五萬圓 拂込濟
營業路線延長 二、六三○、七粁
營業所配置 左ノ如シ
本社直轄營業所 本社內
鎭南浦出張所管內營業所 濱町 新陽里 船橋里
价川出張所管內營業所 江西 自福 眞池洞
新安州出張所管內營業所 德川 球場
新倉出張所管內營業所 安州 萬城 順川
陽德出張所管內營業所 寧遠 孟山
江東出張所管內營業所 仁平 東陽 順川
永柔出張所管內營業所 勝湖里 成川
祥原出張所管內營業所 漢川 肅川 順安 中和 楠亭 遂安

印刷職工大募集 一、男子卅名 一、十六歲以上 ... 平壤印刷業組合 事務所 平壤府新陽里一五〇

求事業家 五萬圓出資、 ... 朝報案內 ...

印刷會議所 ... 本月로改印 ... 諸位 ... 江華 ... 栁 信白 ...



補血强壯 精力丸

補陰·補陽·消化不良·貧血症·不眠症·精力衰弱·陰虛火動·神經衰弱·肺病

一、本劑는古來의 秘方仙藥으로 누구나服用하시면 補陰補陽의 그效果는어느藥보다도 顯著히 卓越합니다
一、本劑는 먼저試用分一劑만 服用하시더도 消化는勿論食慾이增進하게되오며 繼續하야服用하시면 따라서人間樂의 問題까지도 無難히解決할수잇습니다
一、論보다證據이오니 第一效果가만코 信用이기픈 本劑를서로 勸하고 항상服用하시와 健康하신몸으로 不老長壽하시길바라요

【用法】一回五○粒一日三回每食後服用
試用分七日分三○○ 一個月分一○、○○

京城西大門町一丁目
振替京城一八六九九 電話光化門二三一九番 圖岩合資會社

年末名物景品付賣出 平壤서도一齊嚴禁
射倖心根絶消費節約徹底策 短期割引賣出만考慮

【平南支社發】평안남도에서는 경찰국과 물자조정기관의 노력에 불구하고보당의 폭리행위에 여 아직교묘하고도 악질행위를 을주하는 부면상인이 거리거리에 잠재하여잇슴을 우려하여경찰부에서는 관내각서에 「경리를 다하여 이러한행위를 적발하것을 엄벌하는동시에 세말이가까워오는때 대중의주머니를 노리여 사행심(射倖心)을환기하야상품을 대량적으로 처분하려는상인의 행위를감시하고 소비절약을철저히하는의미에서 경품부대매출을 엄금하고 물가의의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할인매출(割引賣出)만을허가하기로하라는방침을 지시하엿다 이에의하야 평양의명물로 「경품매출」도 그림자를감추고 악덕매출이 비상시총후를 대표하게되엿다

高齡者招待 咸南서五氏決定

【咸南支社發】함남에서 고령자……

永興郡…… 二七五 ……(八〇)
元山府本町四二 李……(八〇)
利原郡東面……
新興郡加平面……

馬山中學校 新築落成式

【馬山】마산부민의 여망이던 마산중학교는 소화십일년삼월에 조선에서도 처음되는 내선공학제로 설립인가되여 서전기성회장(西田期成會長)의 주선으로 …… 조선에서 자랑할만한 교사를 준공하야 지난 사일오전십시부터 …… 교정에서 산택지사도학무과장 기타 래빈팔백여명의 참렬하에 성대히 거행되엇는데 …… 마산중학교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스며 오후한시부터는 ……

初等校의擴充따라 中等學校도增設
慶北道教育費無削減

【慶北支社發】오는 소화십사년도 예산편성기를 압두고 경북도에서는 각과의요구액이 거의결정되엿는데 이에의하야보면 학무과(學務課)의 예산이 제일다액으로 각과의 요구액내용을 보면 명년도신규예산이 전연업는탓만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삭감을하는테엿는데 반하야 학무과에서는 전연도에비하야 초, 중등학교연차확충 청년훈련비등이때까지 보지못하던 격증을 보엿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것은 중등학교 확창안이라고한다 교육령개정이래 일로팽창하여가는 초등학교에 대하야 그졸업생을 수용하기위하야 명년도내에 도내에 고등녀학교(朝鮮人女高)일교를 신설하고 대구상업(大邱商業) 김천중학(前金泉高普)등 세중등학교에 학급증설을하기로할터이라는바 이계획이실현되면 도내에서 일약고등녀고가 백명, 남자중등에 일백오십명의 신입생을목표할것으로 매년가티 다처오든 중등교지원자의입학난은 다소완화하게될것이라고하야 일반은바에 의하면 경북도에서는 반응ㄴ커다란기대를가지고잇다

◇ 三、講師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理事 李升雨氏 天道教中央教會 大宗司長 李鍾麟氏 京城中央學校長 玄相允氏

沙里院公設市場 不遠間工事着手

【沙里院】쓸한주민이 살고잇는사리원읍은 부끄러운일이나 아직도공설시장이업서 불편을느끼고잇는바 지난구월초순에 인가를어더 읍당국에서는 기방에 착수하엿거니와 그동안 하로속히 동공키로 하엿든바 수속관계로 지연되다가 근근 끄나게되여 건축공사에착수하야 내년봄까지에 완성하리라는바 도시의 면목을 일신하리라고한다

美談兩題

【江陵】구주문사시(門司市)출신 고해군항공병조장(故海軍航空兵曹長) 빈전선태랑(濱田善太郎)씨 유족인동은 지난칠일부 그의조치면요 …… 에서 …… 동부인회에 송금해왓다는바 동부인회에서는 곳영수사장을 발송하는 한편 일동은 마음으로부터 감사를보내엿다한다

◇

도전기고해군항공병조장 빈전씨의 매씨 삼각(三角)기꾸노씨는 지난한구(漢口)함락축하시에 조화(造花)해서판돈 이익금삼원을 지난일일부 강릉부인회에 기부해왓다는바 동부인회에서는 한케감사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暴利를노리는 鐵物商에鐵槌
謀利輩平壤에橫行

【平南支社發】경제계의 비상시 폭리추체령을 피하야 가며폭리를노리는 비국민적 상인이 아직상가에 횡행하고잇는중 가장악질의 위반행위는 역시 철강(鐵鋼)업자간에 만히잇서 예를들면 못(釘)한판에 구십전내외밧게바더서는 안되는것을 배범는 일원팔구십전에팔고잇는 형편이여서 폭리추체령을 위반함은아니라 각종공사에도 지장을가저오게하고잇스므로 평남경찰부의 지시에의하여 평양경찰서에서는 시내철재상의 각지를 일제조사하고잇는바 이미 수명을검거하엿다고한다

沙里院에鼠賊

【沙里院】사리원읍에는이즈음상하리(上下里)모씨의집과본정모시계점등에 밤중에들어와 절계를드려내는 좀도적이성행하야 경찰도 머리를알케한다는데 특히일반은 주의하야주기를 당국은바란다고한다

北鎭幼稚園主催로 李寅善氏獨唱會
各新聞支局後援으로

【北鎭】일직이 그이름이 세상에알려진 반도가나흔 테너ㅣ의 명가수 이인선(李寅善)씨의 독창회가 오는십일밤 북진예배당에서 북진유치원(北鎭幼稚園)주최로 본보와 및 각신문지국후원아래 열리게되엿다 유치원의흔렴어업는 교육은 기초와근본을 무시한 교육이라하야 이기관의 필요성을 느끼바되여 북진에도 유치원이 설립되지는 오래엿스나 상금 그재정적기초가 확립되지 못하야 유지곤난을 갈수록 막심한가운데 어유지비에 다소나마 도움을 바들까하야 이번에 이인선씨를 초빙하야 씨의독창회를 개최키로하엿다는데 북진에는 이인선씨의 독창회가 처음이니만큼 만흔기대를 가지고잇다 내지방자녀의교양기관인 유치원을 국력원조하시는이는물론 일반편은 기회를 일치마시고만히 입장하시기를 바란다고한다

國民精神作興週間의行事

【新義州】오는칠일부터 십삼일까지의 칠일간국민정신 작흥주간의 행사에관하야 동중동위원간의수련명에서는 당국의 협력을비롯하야 이에관한 강연회를개최하기로 되엇는데 그순서는다음과갓다

一、時日 十一月四日 午後正七時
二、場所 新義州府梅枝町國防館

江西에流行性感冒

【江西】강서지방에는 요지음일기가 불원하야각곳에서 유행성 감기가 돌고잇는데 일반가정에서는 만히주의하기를바란다고한다 그런데벌써감기에 걸린자가 다수인모양이다

筏橋邑에大火 損害約四萬圓

【寶城】전남보성군벌교(筏橋)읍내 공천여관(吉川旅館)에서발화하야근방으로연소되야 팔호가 재로변하엿다는데 그손해액은약사만여원이라하며 소방수의활동이아니엿더면 더큰손해가 잇섯슬것이라고한다

基督教信徒等 平原神社參拜

【順安】지난삼일명치절의 가신을기하야 평원(平原)군에서는편내기독교신도대표자 삼백여명을모아노코 서장과 송(宋)군수립석하에 여하신사참배식을 성대히거행하엿는데 이것으로 기독교신도들의 신사참배에대한 태도가선명하게되엿다

平康魚龍堤에 "스켓"場新設

【平康】평강어용제(魚龍堤)는경성제대 의학부(京城帝大醫學部)고지대요양소(高地帶療養所)설치구역에잇는 읍동남편(邑東南邊)에거울가티 노혀잇서 유원지로 유명한곳인데 하절에 고기낙기와동절에 활빙장(滑氷場)으로유일한 유원지인바 금년동기부터는경성제대에서 "스켓"장을새로설치한다는바이로써 어용제는조선에유일한유원지가되리라한다

每朝早起 皇居遙拜

【蘇萊】부천군 소래면 사천장(富川郡蘇萊面栢川場) 청년들은 매일아침 일지기 이러나서 황거요배(皇居遙拜)를한후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한다는데 일반은 그청년들의 모범적행사에 찬하함을 마지안는다

清津强盜의拳銃은 작난감으로判明
犯人의踪跡아직杳然

【咸北支社發】기보=지난사일새벽청진부포항동(浦項洞) 진국준(陳國俊)의 담배가게에 침입하야 권총가튼것을 가지고 현금삼십여원을 강탈하여간 사건은 시가가 마치 불경기의 절정에빠져가고 잇는때인만큼 심각한충동을 이르켜주엇다 철통가튼수사망으로도아즉은이러타는 확증을잡지 못하얏스나 범행의태도로보아 그집부근에살든지 혹은자조 그집에출입하든자의 행위가 아닌가하는것만은 넉넉히짐작할수잇다 한편 주목을끌고잇는 흉기가 피면 무엇이엿슬까하는점에대하야는 피해자인 전부인의 말대로 작난감권총임에틀림업는모양으로 그다지 놀랄만한 흉악한범인의 행위갓지는 안타 이제 피해자의말을들으면다음과갓다

被害者 全夫人 談

『담배를팔라고 고함을 지르기로자다일어나서정방에 나어가보니 삼십여세되야보이는 괴한이 조선옷을입고 한손에총가튼것을들고『만일에 반항하면죽일테니 거기안저라』함데다그순간 나는 정신을차리지못하고 당황하야 안젓드라니까책상서랍을 죄다여러저치고돈삼십면원인가를 가지고나아갑데다 가저간돈가운데는 십원짜리지폐한장 오원짜리한장게다가오십전짜리지폐일부은행권네장이석겨 잇습니다 아마도그손에든총은 딱총이안인가물으겟서요……』운운

정어리恐慌도酷甚
有力者不渡手形
清津商街에影響至大

【咸北支社發】정어리공황(鰮恐慌)이 심각화해감을따라 청진상계는 형언할수업는 비참한상태를연출하고잇서 수천의중소업자는 궁끔두색으로 허덕하고잇는데 이로인하야 파산하는자가 속출하리라하야 청진상계는 기어코 침체되고잇거니와 특히주목을끄는것은 정어리업자(鰮業者)들에도 파산할지경에당한자가 나타나는것이다 사일청진 수형교환소(手形交換所)에 나타난 부도수형(不渡手形)가운데는 동해개도 청진부내모유력자로 정어리업자인 모모씨의 수형이 부도된것이잇서 이것이 처음부도되엿다는것은 이것이 업게에도 크다란충동을 울려주고잇다 더욱이 요지음 우려가만허수가튼 일이속출할 한국적지반의 요지음부도될가 하는 중요한 자료가되고잇다

獻金美譚一束

【內金剛】일전에는 당지에잇는애국부인회로부터 금오십여원을국방헌금으로 보내스며 그중김묘문여사는 칠원으로 어든돈일

長篇小說 林巨正 【171】
洪碧初 作 金能超 畵

청석골 (十二)

김산이가 이춘동이 몰으게 더지시 식사공궤하는 졸개내외를 시켜서 도중 숙설청(熟設廳)의 말근술을 반주할만큼 가저오게하고 또 한오이짐의 솜씨초를 찬을 멋가지 어더오게하야 제법 모양잇는 겸상으로 이춘동이와가티 저녁밥을 먹는중에 꺽정이가 자기 서생의 조호한 찬을 여러가지 물러보내서 상이 좁아 겸상까지 벌려노케되엇다 김산이가 해인김에 포식하고 식곤종이 나서 이춘동이더러 잠시 누엇다가 여러두령이 다모일때쯤 가자고 말하고 누어서 잠이 소르르 드는것을 여메누은 이춘동이가 흔들어 깨웟다。

『바게 누가 왓네』

하고 김산이가 바깥을 열어

『고동안 잠이 들엇든가』

손님을 뫼시고 얼른 오시란다 밧분아프로 들어서며 대장께서 저치축 초롱들은 졸개하나가 고 전갈하얏다 김산이가 이춘동이를 재촉하야 둘이함께 버서노한은 의관을 다시 차린뒤 그졸개를 압세우고 꺽정이사랑으로 왓다 꺽정이가 리춘동이를 마저드리는다고 자리에서 일어서니 아래웃간에 렬좌하얏든 여러두령들도 모두 따라일어섯다 서림이 박유복이 배돌석이 세사람이와 황천왕동이 김산이를 보고 잘다녀왓느냐 인사들하는동안에 꺽정이는 발돈마진편 첫자리에 안진 박유복이를 리봉학이 여프로 올라안께하고 그자리에 리춘동이를 청하야 안치엇다 아래간에는 꺽정이와 리봉학이와 박유복이가 느런히 안고 박유복이아메 모꺽거서 리춘동이와 서림이가 억개를 견주고 안꼬웃간에는 배돌석이 길막봉이 김산이 세사람과 황천왕동이 곽오주 한온이 세사람이 두줄로 마주대하고들 안젓다 이러케 좌정한뒤 꺽정이로부터 시작하야 아래웃간 여러두령이 김산이만 빼노코 면면이 리춘동이와 초면인사들을 하는중에 리춘동이가 한온이의 얼굴을 물그럼이 바라보며

『서울남소문안 한치지 영감의 자제 아니시오』

하고 물어서

『네 그렇소』

하고 한온이가 대답하얏다

『우리는 구면인데 나를 몰라보겟소』

『전에보엿든지 의사부사한데요』

『내가 서울잇슬때 동무비편으로 루 며예두 더러 놀러갓셋소』

『네 그러셧든가요』

『변명으로 얼굴 맹진병이란 사람은 잘아시겟구려』

『아무렴이요 그사람이 배우모의 큰아들이요』

『그래서 그사람이 날전에를때 대 처지엇감이 미천을 대주섯든답니다』

『옭지 인제 알겟소 맥이 맹팡이 난천에잇는 어서방이구려』

『그렇소 내가 서울서 제일사이조케지낸 동무가 맹팽이엇소』

『연송을 맹팽이집에서 우리가 만낫생각이 나온』

『그때 대온 츠럽동인데 얼골 꼽드스러운것이 처생 며동갑이엇지』

『예 여보 점잔혼사람더러 그게 무슨소리요』

『지금은 점잔치만 그때야 어듸 점잔햇소』

『하여든 반갑소 나는 당초에 못알어보겟는데 용하게 나를 알어보셧소』

『성씨 동구 어릴때 나섯지만 전에본 얼굴모습이 떼이 번하지안헛소 그런데 손목을잇스니 웬일이요』

『우리아버지 거상이시오』

『처지영감 거상이란말이지 언제 돌아가섯소』

『인제 겨우 졸곡 지낫소』

『상주님을 그대루 보여서 쓰겟소 새루 구지인사하구 보입시다』

하고 이춘동이가 한온이에게 절을하라고 일어서는데 여메안진 서림이가 부접부천하게 생각하야 졸곡자리를 비켜주지안코

『서루 섭섭은 수작까지하다가 새삼스럽게 조문이 무어요그려구 여기가 조문할자리두아니지 제례하시오』

하고 말하니 리춘동이는 한온이더러

『영감 상청을 뫼셧겟지요』

하고 물은뒤에

『그럼 내일 상청에 다니러가겟소』

하고 말하며 곳 그대로 주저안젓다

地方人事

◆吉田……氏(……)新任人事次 本社……來訪
◆今井安太郎氏(平安南道警察部)…… 新任人事次本社平南支社來訪
◆金……氏(平安南道警察部)……
◆車仁……氏(前郡北……)……同上
◆朴……氏(前……郡守)退官人事次本社……來訪
◆金井……氏(……郡守)新任人事次同上
◆李……氏(前……)新任人事次同上
◆宋吉……氏(……)新任人事次 本社全南支社來訪
◆金……千氏(……)同上
◆李……氏(……)同上
◆金……氏(……)同

照明彈

……(照明子)

二重殺菌을하여야만림질은 곳根治됩니다

東京日比谷病院長 醫學博士 深瀨周一

림질을 속히고처버리실 여러분! 여러분은 림질의병화근이 어느곳에잇스며 그로말미아마 생기는 모든 무서운고장을 깨닷지 못하고 다만재래의 습관에따라 內服藥을써서 치료하시나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바와가티 아무리 조타는약을 장복하여도 根治가 못되고 늘 재발되고잇지 안습니까! 어째 그러냐하면 림질은 男女부의묘도점막속에 병균이 뚤어가서 그곳에 동지를만들고 복게하며 점점더게하면서 점점 속기퍼 파고들어가고잇는 병이만큼 무어보다도 먼저 병화근인 묘도점부조직에서 活動하고잇는 淋菌(림균)을 속히 죽이며 상처난곳을 어떠케하여야만 속히낫는것은 정한이치인데도 불구하고 胃腸을경유하야 약간의약기운이 오줌에 섞겨서 그곳에 일오게되는 內服藥으로써 낫기에는 너무도 더구나 모서럽 흉집이 생겨잇스며 한 병균인까닭에 그러케 根治가 되지안는것입니다 그리하야 世界醫學界에서는 과학의 진보에따라 먹는약으로는 림질이 낫지안는다는것이 명백케되엿스며 그대신직접 병근에 (국부속에) 치료하여야만 림질을고칠수잇다는것이 共通的이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국부에 직접약을넣서 곳치는요법도 일정일단의 폐단이잇서 유감이적지안엇습니다。

즉 강력한살균력을 가진 국소 은제(銀劑)일지라도 정당한것이 적엇고 또는가루약을 애교로차고 좌창이처럼만들어 국부에넛는약가튼것까지 생기게되엇스나 역시적합한 효험을 엇지못하든중 우리東洋서 독일보다먼저百發百中의 림질근치약이 세계적 大發明되엇습니다. 즉 强力한殺菌을가진 『부라온銀젤고-루』가 그것이니 재래의치료제의 결함과 약점을 모두 보충시킨 치료약으로써 적은分量으로 막대한효과를 나타내는약이며 强力한殺菌、消炎、鎭痛、收斂作用을가지고더구나재래의 치료제에서는 도저히 볼수 업는 二重殺菌療法이 갖구되어잇는까닭에 아무 부작용의 염려업시短時日안에 根治시켜줌으로환자들은 청시적육체적고통에서무슨약보다도 速히 버서나게하여줍니다

004061 K-176

어째 二重으로 殺菌을 하여야만 根治되는가!

부라온銀젤고-루는 의사전문약일뿐아니라 一바자태치료에도 사용하야 병원치료와 똑가튼효과를엇는 특증이잇스니 그것은 말치 의사가진찰해가면서 병세에맛추어서 약을쓰는것처럼 二重殺菌療法이 갑구되어잇는까닭이니 急性증세인분이나 만성고질이되신분이나 젤고-루一號를 쓰시고 젤고-루二號로 거듭치료하시면 百發百中으로 근치됩니다

그리우를 알기수월게說明한다면 一號로치료할때 림균이죽으며그와동시에 흉집도아물게되나 그외더부러 그조직세포의변화에 따라 병균의성질도 달러지는것이오 어살기게되니 이것은 二號로곳치여만족게됩니다 그러므로 잇는 사람이상의인만큼 一號의 약성질과二號의약성질을 한꺼번에여거서쓴다면 결국一部分밧게 치료가되지안케되므로오즉『부라온銀젤고-루』二重殺菌療法만이 그특공을 가지고잇게된만큼 림질치료에서는 물론이요 일반자태치료에서도 적확한、全治기록을 나타내이게된바이오니 조금도주저마시고 속히 엇혼한 조섭과함께 一號와二號로 치료를시작하시사 근치의기쁨을 어더주시기바라오며 家庭生活을하시는분은 반드시 부부협력하여서 두분이 가티 곳처야 되오니 부인께서는『三號』로 치료하여주십시요

두렷한 살은 全治實例

치위에再發되는것을 약두瓶으로根治햇슴니다

(高城) 張敬淳

…昨年에 春川서 淋疾을 걸린것을 內服藥을 六個月이나두고 먹엇드니 조금 나은듯하야 그대로 두엇든것이 치운바람이 부러오니까 갑작이 再發되야 신열이나고 아퍼서 苦生하든중 貴社의 『부라온銀젤고-루』의 一號와二號의 二重殺菌療法으로 中瓶을 계속하엿든바 神奇하게도 즉각에 根治되엿습니다 이곳에잇는 病院에가서 病原을 檢査하니 조금도 淋菌이 업다고하니 이런 기쁨이 또 어데잇겟습니까 이곳에 同病者에게 좋은 것을 선전하겟습니다……

약하바울로 단三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약

먼 부라온銀젤고-루의약가는 보급약(가정용三號) 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의 구별이 잇사오니 본보독자에한하야 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番)

설명보고서 무대진정

어非常時에맛당한 健康한일군이되자

림질을 根治못하고게시면

㊀ 고통과 번민으로 자기신세가 딱하게됨
㊁ 죄업는 부인께 전염시켜 집안이패하게됨
㊂ 國民健康을 해롭게하고 子孫에게해가됨

北鎭

李寅善氏獨唱會

時日 十一月十日午後七時半
場所 北鎭禮拜堂
主催 北鎭幼稚園
後援 東亞、每新、朝鮮各支局

白蔘時勢表 昭和十三年

朝鮮名産 機張土種白蔘

片別/等級	特等	一等	二等	三等
十片	二 五〇	一〇 〇〇	九 五〇	九 〇〇
十五片	二 〇〇	九 七〇	九 一〇	八 六〇
二十片	一〇 五〇	九 四〇	八 七〇	八 三〇
三十片	一〇 〇〇	九 〇〇	八 三〇	七 七〇
四十片	九 五〇	八 七〇	八 〇〇	七 四〇
五十片		八 三〇	七 七〇	七 〇〇
六十片		八 〇〇	七 四〇	六 七〇
八十片		七 六〇	七 一〇	六 四〇
百片		七 三〇	六 六〇	六 一〇
二十五片	一〇 三〇	九 三〇	八 五〇	八 〇〇
尾蔘	八匁入 二圓三拾錢也			

服用上絶對安全 (正味八十匁入)

◇諸位의渴望하시든新品白蔘

◇注文時에는等級片別과住所氏名을詳細記하시요

◇注文時에는等別及多少先金을要함

不開封檢査로品質正確!!

機張土種人蔘 朝鮮釜山 玉浦人蔘耕作販賣部 振替釜山六八〇二番 電話釜山二六〇四番

專賣特許 藥用크림

アモパンパヤ

여드름 죽은깨 기미除去

一號 ……一圓五十錢 二號(……)……

パパヤ洗粉 四十錢

見本進呈……要三錢切手

株式會社 杉田商店 東京市神田區住吉町

淸血排毒强壯劑

海草精

適應症 慢性梅毒疾患、淋毒疾患、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風、咽喉疾、腫珠瘡、頭痛、腦溢血、中風、內臟、疲腫、動脈硬化症、半身不遂

피를맑게하고 여러가지독을업새면 만병은소멸된다 이모-곳해초정의위대한효력을시험하라……

一個 二個月分 三圓九拾錢

日本政府 ……

京城府鐘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替京城二〇九八番 電話光化門 四〇六九番

治療師短期養成

日本政府特許 器械鍼 鍼灸 英米獨佛特許

○廿歲以上의男女修得保證 希望者歡迎 ○朝鮮鍼術治療院開業營業 不振者歡迎 退職官吏職員歡迎

通信科·實地速成科

全國無試驗開業 ○僅少資金好職業永久實任 官廳宛、届書類完備、學則文獻送呈(郵券三錢必要)郵券三錢

京城府大和町三丁目五五 奧村療法朝鮮學院

本報水原支局 電話一五二番

味覺의秋에 악갑게도意外의虫害

虫退治 マクニン

먹기쉽고·잘듯고·害가업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丸善의 新넥타이

價一圓八十錢

丸善의 와이샤쓰

價三圓六十錢

丸善 京城府本町二

七日ヨリ十三日マデ

第一線の人々

新妻讀本

ターザンの復讐

明治座

論說

「고맙습니다」와 感謝의 生活

延專 李明善

『朝鮮말에서는 感謝의뜻을表하는『고맙습니다』의使用되는度數가 極히적다 國語에서『아리가도』英語에서『생큐』가使用되는 度數에 比較해보면거의使用되지안는셈이다 이만치朝鮮사람들은 感謝의生活을이저버리고잇다 그러므로 나는그들에게 感謝의生活을보낼야면『고맙습니다』를 좀쉬더자조쓰도록 勸告하고십다『고맙습니다』하엿다고 人格이 떠러지는것도아니고 地位가 나저지는것도아니다『고맙습니다』는 和睦의象徵이다 朝鮮사람은『고맙습니다』를 더자조쓰도록하여라』

그前에 宗敎講話를 들으러가선가 나는 이러한 意味의演說을들은일이 二三次잇섯다 加藤明堂氏의 講演에도 이러한말이들어잇섯다고 記憶한다.

나는 그네들의 이正當한言說을 否定하고拒絶할아무理由도업섯다 나는 朝鮮사람만이 感謝의生活에서멀어진 不幸한사람들이라생각하고 朝鮮사람들도『고맙습니다』를 더자주써서 感謝의生活에 한몫끼이도록하는것이 조켓다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이러케 생각하면서도 왜여러해를지난 오늘까지 나는 이것을 實行못하고와다. 그러고 지금에는 不幸하게도 이것을實行하고저하는意思까지 抛棄하지안흐면 아니되게되엿다. 나는永遠히 그들의 所謂感謝의生活에 한몫끼이고 말는지도 몰른다—아니 必然코 그러케 될것이다.

나는 지금생각한다.『고맙습니다』와 感謝의生活과 아무因緣이 업는것은아니나『고맙습니다』안는다고 그사람가슴속에感謝의感情이 枯渴된것이아니라고—。그리고도『고맙습니다』를 자주쓴다고 그사람가슴속에 感謝의感情이 汪溢하여잇는것도아니라고—。

百貨店入口에는 制服의少年이 서서 외終日『고맙습니다』를亂發하고잇다. 그러나 그少年만이 남달리 感謝의感情이 汪溢하여잇지안흘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다.

支那에가면 장사때에 상제를 代身하야 목청조케 엉엉울어대는『울냄이』가 잇다한다. 그러나 이『울냄이』의가슴속에 그러케 남달리 悲痛한感情이 북바처 잇스리라고는 생각할수업다.

이런것은 勿論 極端的인 特殊한例다. 나는 어런것으로 제말의 感受性을 表明하고저하는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저體裁的으로『고맙습니다』하고 엉엉울고하므로 一般人의 生活感情을 이것으로써 云云할것은너무나 明白한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注意하야 우리의 周圍를 돌아본다면 一般人의 生活感情도 前부터의 慣習으로 말미아머 이와비슷한 現象을 이루고잇는것을 알수잇다. 朝鮮사람은 보통누구나 父母가죽엇슬때에 다른나라사람에 比較하면 훨신더 소리를내서 운다. 더구나 女子들은 五臟이끈허지는듯한 切痛한 소리를내여 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바로 山川草木도 感動할만치 흐늑느겨 朝鮮사람이 남달리 父母의 죽엄을 슬퍼한다고는 말할수업다 慣習이 이러할뿐이다. 慣習이이처럼 소리를내서 울게할뿐이다 그러하므로 朝鮮사람일지라도이러한 慣習에 저저잇지안흔 사람은 다른사람처럼 소리를내서울지는안는다. 나의동무K君은 自己父親이돌아가시엿슬때 兄님들은 소리를내서 느껴우는데 自己만은 아무리하야도 소리가나오지안허 저혼자 不孝인것가타 大端히 거북하엿섯다고 告白하는것을 들은일이잇다 K君이 父親의죽엄을 兄들보다 덜슬퍼하여 그러한것이아니다 그러한 慣習속에 드러가잇지 안헛기때문이다.

朝鮮사람들이『고맙습니다』를 자조안쓴다는것도 慣習이—여기서는 言語習慣이—그러할뿐이지 感謝의感情이 缺乏하여그런것은 絕對로아니다 朝鮮사람의 言語習慣으로는『고맙습니다』를 자조쓰면 도리어 輕薄한사람으로보이고 도리어事實에잇서서도 輕薄한사람이『고맙습니다』를 亂發한다 그러므로 朝鮮사람에게『고맙습니다』를 자조쓰라고 勸告하는것은 感謝의生活에 드러가게하는것이아니라 輕薄한生活에 드러가게하는것이다 도리어『고맙습니다』를안는데 거기에朝鮮사람으로서의 感謝의生活이 잇는것이다.

이러하야 나는 그들의言說이 가장淺薄하고 鄙俗한 愚論에不過하다고 斷定하는것이다.

—밤—거—리—……詩

京畿中學 崔載亨

고요히 어둠이 沈澱되고、 海底처럼 흐린
雰圍氣속에
朦朧처럼 빼앗간 네온이 明滅하는 어깃
거리는 바다업는 港口—
베니스의 슬픈 小夜曲을 라고
밤은 충충 기퍼만간다。
가을비 차운 哀愁를 뿌리며
까아만 밤 아스팔트에 흐느껴울고
거리의 푸라타—느도 눈물겨운밤
거리동을 외로히 孤泣한 寒困한 悲愁를
배푸러……
하지면일 못하고 鬱鬱히 도라가는
오오、孤獨한 나의 靑春이여。
나는 동이흔 거리의 放浪兒—
可憐한 집씨의 漂泊한 꿈이안고
사랑도 벗도 떠나가지 오래인 어스거리를
날마다 지향업시 헤매이다가
어둠처럼 가만히 사라질 외로운 몸이니……。
淸明한 비방울이 흐려지는 鋪道우엔
조각난 記憶의 波紋이 서린다。

隨筆

아모크

梨專 趙敬姬

제롬아!

主人도업는 빈방에 안고간 코스모스만 내던지고 거리로 나와버렷다. 네가 恒常조아하던 長谷川町거리에는 가을비가 어둠과가티 나려서 목을노흔 귀뚜람이보다 더 구슬프다. 비마즌 페이브멘트우에는 네幻像의 스켓취들이 거미줄가티 어른거려서 발티리에 채일듯하다. 지금좀 네방은 코스모스香氣의 滿潮를이루엇겟지!。 거리는 너와가티 보라간 N畵伯의 그림인냥灰色의世界다. 장명등은 조으는듯 稀微하고 人跡은 뚤리시모에서 괴아니시므로 變하고잇다。너와가티 잘것던 이거리를 한발자옥도 내디딜 힘이업고 어지러워 괴가로의축축한 몸을 실어버렷다。언제든지 나는 이집에 몸을던지고나면 너와가티 旅行햇스면하는 생각이 더욱 번저간다 그런데 너는 한마디 말도업서 혼자떠나고 말다니!。이방을 無軌道우에 運轉하고회파람을 불면서 너의그림자나 조차볼가도 햇지만 쑥스러운짓이다。언제봐도 生의倦怠를 느낌줄모르며 젊음을 享樂하는 棕櫚나무가지를 輕蔑하면서 부러워한다니。왜이世紀의 젊은이들은입에서 叱하는煙氣들만嚴弄하는대倦怠를느끼지안흘가? 思索的英國의하이드파이니 뭐니하며 이런霧圍氣속에서 瞬間的이나마 自我를忘却하는 버릇의 익힌 내自身도 나는 한없시 唾棄한다。嘲諷하면서 阿片쟁이처럼 무슨아지못할 磁力에끌리는나 이련대서 쏘키피의단맛을 배웟고 放浪의悲士를 아러다。너의 프른빰의 角度가 허미러저가는 커피잔을 들러업다십다 그리고 내자 조하 하는 바이오린의멜로디를 프는 分水嶺, 레코드판 까지 똥똥겨부시고 십다 한번대 저리만하도록 憂鬱하고 잇는 大理石가튼 彫刻를 멋죽한 하이힐로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갈기며『그리고 안젓스면 무엇이 나온대요?』하고 웨치고도십다 해여 神經質의發作이라 비웃슬나!。나의로고스가 싱슴난나를 嘲弄한다。뜨거울줄만 아는내 心臟이疲散하는어리석음을 勝負업는게임을 嘲諷하게 안타까울도록 疲困하다。문어발 똥긋이 가아프다。네모양이 新體를을리는 聖徒의反映갓다니 땅[illegible]레서 일하는쿠리(苦力)에 더가깝지가 안흘가? 제롬아 동맹이에 달어서 기픈 바다에내엿겟지 생각햇는데 고무風船 던진情熱 고래의장난감이 되인냥 다시 떠올라와서 나를 괴롭힌다。그러나 네빈방에밀려든코스모스의 香氣가 채사라지기前에 네가도라왓스면하는어리석은 생각은 내입에서 나가는 회파람과가티 푸른旅空으로 날려보내련다。

『지난번 學生座談會記事=校內校外名講義印象에서『講義를듯는學生은 六百餘名에나 그中에서四十名만 解得하면 多幸이겟다는것은 全部誤記이기에 玆에訂正함』

學生模擬新聞

延專篇

C、C、C의禮讚 —(댄초哲學)—

—유—모—어—사—설—

文—吳龍淳

延專을 Chosen. Christian. College. 의 세C字로 불른다는것은 너무나 올든스타일이다 여기에 새로운 科學的考察과哲學的意義를 賦與하는것이 吾人의 任務이다。

첫째 C字의外形을보면 둥그스름하야 圓滿함을 象徵하고우룰同하야 바야흐로 움직이려는 行動性을 表示한다。이것이 卽 우리學校의 先天的性格임을알고 나의 理論의進展을 謹聽해야한다。

단추를보면 이C字 세개가세장등이처럼 의가조타。그의外輪을 直線으로 包括한다면 正三角形이 誕生하나니 絶對的인安定性을 意味한다。如何한 風打浪打한 世波가밀려올지라도 어三C야말로 피라미드처럼 버티고서서 世紀에서 世紀로 傳하야갈것이다。

다음에는 어것을言語化하야 크게한번읽어보자。『C·C·C』하고

CC는곳 씩씩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C字가 두번만 엇스면 씩씩한데 끄처고말겟스나 한번더엇다。씩씩함을 止揚한 젠롤(점잔)함을 말한다。

또C와 See는 가트니 세번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하는것이다。얼마나 우리學校가 훌륭하야 世上사람들이 欽慕하고 讚揚함을 알리라。

또하나는 한글로써보면 씨、씨、씨가된다 장시옷이 세개니『ㅅ』으로 換算하면 勿驚여섯개다。仔細히 볼지어다『ㅅ』은 漢字『人』이니라。참으로 사람다운 사람들이 讀讀히 나와서 社會를向해 See, See, See,하고 나간다는것이다。

그러나 讀者여! 불레지말라 英語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漢文으로 自由自在로 뛰여다니는 짬짜擊者에 對하야는 우리學校 崔鉉培先生님이 눈을 부릅뜨고 놀래실것이다。

셋재로는 세C字가 제各各 獨立하지안코 거리업켜 三位一體가 되엿다는것이다 Captain. Conduct, Children. 다시말하면 校長 先生 生徒가 한마음 한뜻으로 一身同體가되여 엉켯스니 우리學校의 구든 團結力과 다사로운 親睦을 雄辯하야 줌이다。

내 섬섬푸리로 辭典을 떠드니 CONJINUAJION (永續) COLLEGE가 나온다。아! 이것이야 CHARMING(魅力) COLLEGE 말로 奇蹟이 說明해주는 우리學校의 定義가아닐가? 永久히 魅力잇는 칼레지!。그러타 이것이야말로 우리學校의 眞正한 意味다。—(끗)—

=覺書=

躍進의出發

文—嚴達鎬

『모든것은 이미 이미 이야기한것이지마는 아무도 듯는사람이 업서서 恒常 거듭말하지 안흐면 안된다』—앙드레 지드—

人間으로서의 成熟이 잇슨後에야 文學으로서의 自然을 세울수잇다。作家도 亦是 社會百般의 知識을 探求하야 그곳에서 偏狹하지안흔 人生觀 社會觀乃至世界觀을 세워서 그視角에서 모든것을 批判하는 力量곳 自信을 길러야할것이다。自信이 업는곳에 完成이 잇슬수 업다。이런意味에서 作家道는 곳 人間道이다。取材와 視野에 對한 局限性固執性、社會現象에對한 編執的根性이 곳 그文學自體의生命(價値)을 줄임이 얼마나 多大하다는것을 알것이다。作家는 地上 아니 天國으로부터 地獄에이르기 까지를 最大의 飛躍力을 가지고驅使할수가엿다。이것은 作家만이 가진 자랑이다。

×

眞正한 意味에 잇서서 現在 朝鮮文壇이맛보고잇는 苦悶的偏狹的……諸現象은 鞏固한 압날의 躍進을 爲한 試鍊과 受難이라고 우리는 본다。우리는 完成되지안흔 새로운文學을 向해 발을 내놋은者이다。그래서 責任과 모든것이 무겁다。우리는 現 朝鮮文壇의 온갓亂行 放縱……을 默認할수업고 自然히 成長되기를 觀望하여서만은 안된다 그 奔流에 끼여 잇서도 안된다。지금에서 解放하여야 한다 새로운 文學 躍進의 文學 空虛와 苦悶에서 沈滯를일운 現在에서 解脫하는곳에 將來의 文學運動으로서의 出發에 意義가 크다。

校庭

떠나간 人……詩

文三 崔環涉

馬車는 박게서 기다리고 髮이나부끼고 뒤니어 힌볼
그대는 옷을 갈아입는다。 결이 구비처 저나갓다。
내 사랑하든 季節의 女人 馬車는 떠난다。
어어! 나는 哭代身 丹楓한가지를
그대의손에다 들려주엇다。
『그만 울음을 그치구려 멀어저가는 말방울소리…
…… 사라저버린 구슬픈 印象圖
그대는 돌아서서 울고잇 여! 우수수 내발미레 와감기
다。
『씨닌』한 어깨우로 金 다。

音樂部主催의 秋期大音樂會
近來의드문大豪華版

延專音樂部에서는 그동안沈滯되엿던音樂會를 새로운 形式의 푸로그람으로 오는十一日(金)下午七時 府民館에서 開催하게되엿다한다 音樂會의 異彩는 여러분의 귀에 아직도 남어잇슬 줄려랄쉬 쏘푸라노 任祥姬氏를 招聘하여 朝鮮서는처음보든 管絃樂伴奏에依한 獨唱을하게된것이다 玄濟明敎授의 指揮棒아래 洗練된 三十餘名의 오ー케스트라는 이번 音樂會의푸로그람의 主가되여 처음부터끗까지 리ー드하겟고 玄敎授의 獨唱은 勿論 지난朝鮮日報공쿨에 榮譽의 入賞을한 金生麗君의 바이올린獨奏도 오ー케스트라伴奏에 依하야 演奏하게되겟다한다 이朝鮮初有의 劃期的 大音樂會는여러분 學生들의 期待하던바이며 또 朝鮮音樂家들사이에도 만흔 期待와 興味를 가진것이니 이機會를 노치지말고 다 드르러오기을 바란다한다 푸로그람을 紹介하면다음과갓다

一、管絃樂 A、러스타피아 (序曲) 벨리作曲
B、仙女(序曲) 도바니作曲 延專오ー케스트라
一、獨唱 A、잘잇거라 토스티作曲
B、노래를드르라(세비라의理髮師) 로씨니作曲 任祥熙
一、바이올린協奏曲 第一樂章 모짤트作曲 金生麗
一、獨唱 A、라멘토(라알레시아나) 저레아作曲
B、참이런가 마리作曲 玄濟明
一、管絃樂 軍隊交響曲 全樂章 하이드作曲 延專오ー케스트라
總伴奏 延專오ー케스트라
指揮 玄濟明

—手帖—

통김치

○우리 學生模擬新聞도 좀더몸집이 커야할텐데 장마에 시달려 用紙統制로요 꼴이다만.

○빗조흔 개살구도 엇저 엇다 참새도 알을 나는데

○그러나 업스면 업는대로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알진 통김치를 만들려다

○통김치란 朝鮮에만 잇는것으로 치울수록 제맛이 나는법이다.

◀詩集『風景』을내인 崔環涉氏와『乙亥名詩選集』以後 첫精進中이던 朴宗軾氏의 玉稿를 실린것은 다함께 깃거우며김치맛도 더잇스럿다

◀때는 藝術의가을 音樂人才들의 豪華版 傳統잇는 延專音樂會 굼수리情緒의 恍惚境은 예아니고 어딜가

◀冬至가차워 김장준비에 눈코 뜰새업서 모든것에 두루간이나 맛는지 서지나 안헛스면한다。(주ㅎ)

—나의正午—詩

文三 朴宗軾

당신의잔에 가득이채울수가
업겟나이다。
차라리 나를 기울려 거룩
한새벽을 삼어수소이다。
온갓이야기를 바치드라도 다
시所願할바가 남겟나이다。
히옷자락에 오래자라나다가
어느날눈을감겟나이다。
버드나무가지에 나의거문고
를一匝여달지요。
누가 나를 알겟나이까。

잠을 이루오듯 보드타오를
魂이되시옵거던
나의感謝의 以前에오시여서
불러보아주시옵소서。
나는 비듬기처럼散하오니
당신의遺業으로 나의尺度를
삼겟나이다。
모래알을 세드시 나의가슴
은 호려젓사오니 어서 黃
昏 날개로 나를덥퍼 주시
옵소서。
그날이 되오면 나의正午는
가壽하겟나이다。

…◇…(끗)…◇…

★ ◎

新選文學全集

天才朝鮮의偉大한發現!! 朝鮮文壇의世界的水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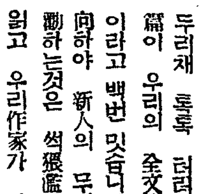
이「新人短篇集」은 朝鮮文壇을世界文壇에 宣揚시킬 偉大한 責務를 가지고 孜孜努力하는 新人들의 絕對自信잇는 傑作을 收錄하니만치 天才朝鮮의 文學的發露로써 우리文壇의 자랑이아닐수업다 우리는 이一篇에서 旣成作家에서 보지못하든 新銳의氣分과 純粹의芳香을 滿喫할수잇는것이니 曉天의 한個 별이랄까 黃昏의 할줄 무지개랄까 그빗나는 內容은 우리文壇의豪華版이아닐수업다 文藝 愛好家는 勿論이오 一般文化人도 누구나 一讀할 良書임을 말하여둔다 滿天下讀者는 絕版前 速히 注文하여두라

新人短篇傑作集 第二回配本

第一回配本 朝鮮文學讀本 大發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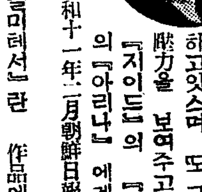
文壇絕讚의新人들作品

『남생이』에 對하여 安懷南氏 評文一節



—懸賞當選小說뿐만 아니라 우리 文壇을송두리채 톡톡 터러노아도 그중『남생이』一篇이 우리의 全文學水準을代表할만한 作品이라고 백번 밋습니다。一般旣成作家들에게 向하야 新人의 무엇을 標本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본밧기 勸하는것은 섣猥濫한일일는지모르나 나는이번『남생이』를 읽고 우리作家가 다함께 얼마동안 試驗해볼 課題로 描寫文學이라는것을 생각해보앗다 (昭和十三年一月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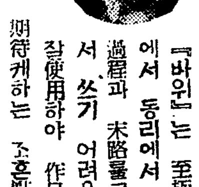
『濁流』와『그늘미테서』 白鐵氏 評文一節



(先略)『濁流』는 現在文學의 最高水準에 達하고잇스며 또그 水準을 얼마 안잇서깨뜨릴 魅力을 보여주고잇다。여기에그려진 愛慾은『지이드』의『좁은門』에 그려진『제로므』의『아리나』에게대한그아름다운 愛에比할것이잇다。(昭和十一年一月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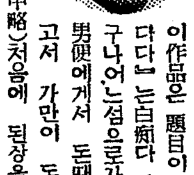
—나는『그늘미테서』란 作品에잇서서 新人으로서 와흔 細密努力을 산다。新人에게 흔히 非難되는 用句의採擇이나 文章이나 對話에잇서서 新人다운 未熟과 空隙을 讀者와 評家아페 보이지안키우하야 오랜時日을두고 勝勵를加한듯하다 그리고 그 努力은 헛되지안어서 이作品은 洗鍊이되엿다。(昭和十三年五月朝鮮日報)

『바위』에 對하야 嚴興燮氏 評文一節



『바위』는 至極히 悲慘한 문둥병자가 집에서 동리에서 쫓겨나고 남에게 버림밧는 過程과 末路를그린것이다(中略)바위에 잇서서 쓰기 어려운 對話를그나마 사투리를 잘使用하야 作品을 잘끄러 나간것은 이作家의 압날을 期待케하는 조흔點이엿스을 말하지 안흘수업다。우리가 이 作家를 어든것은 가장 기뿐收穫이라아니할수업다。(昭和十一年五月 朝鮮日報)

『白痴아다다』에 對하야 李源朝氏 評文一節



이作品은 題目이 말하는바와가티 主人公『아다다』는白痴다 아다다는 수롱에게로 간뒤 더구나어는점으로가서 수롱이의 돈을보고 전男便에게서 돈때문에 虐待밧든것을 聯想하고서 가만이 돈을 내다 바다물에 띄운다는것이다。(中略)처음에 된장을 푸다가 그릇을 깨치고 나가자빠지는것이라든지 其他作者의 說明으로 읽는 白痴의印象이 머리에 남는다。이作品은 短篇으로서 決코 失敗햇다고할수업다。(昭和十年六月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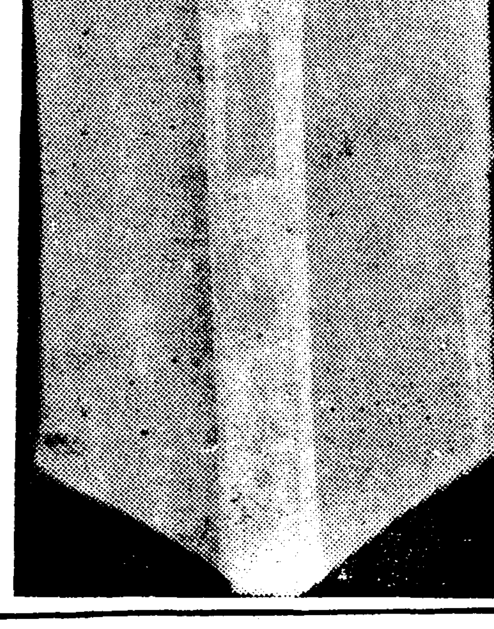
◇ ◇

以外에『옥심이』『晴曇』은 新聞에揭載되여 絕讚을 밧은것이오『中毒者』『寫生帖』은 問題의新作이며 더욱이 城隍堂은 方今半島映畵會社에서 映畵撮影中이다。이로써 이 新人短篇集의 價値를 넉넉이짐작할수잇다。

目次

남생이—玄德
城隍堂—鄭飛石
濁流—許俊
空想記—朴魯甲
옥심이—金廷漢
晴曇—車自鳴
그늘미테서—金沼葉
바위—金東里
白痴아다다—桂鎔默
寫生帖—玄卿駿
中毒者—朴榮濬

第三回配本은 朝鮮兒童文學集 十二月一日發賣

四六版크로쓰豪華美本三百五十餘頁의大冊
一冊 定價一圓二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一時拂 四冊 四圓五十錢 (送料本社負擔)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